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고하시어 하나님의 자비의 권세를 회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병든 인생은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한이 없사오니 권능의 말씀으로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주사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멀리하였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1-2절(상반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56호 2011년 10월 22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 종교개혁주일 494주년...혁명적 변화운동 대세

해마다 10월이 되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주체가 물론 루터나 칼빈과 같은 선구자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종종 망각되어진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채 교회 예배당 문에 95개 조항을 붙였을 때 그는 종교개혁을 생각한 적이 없다. 그저 당시 천주교회 내의 면죄부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고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95개 조항을 붙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 95개조항이 학생들에 의해서 독일어로 번역돼 독일 전역에 퍼져 나갔고, 이런 루터적 생각에 대한 천주교회의 공식적 억압 속에서 루터는 성경을 더 읽어갔고 종교개혁 3대 문서가 나타날 즈음에는 구원 문제와 교회에 대해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다.

점차 확고해진 “오직 성경”(sola scriptura)과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의 공로에만 근거한 구원 이해, 즉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말미암는 “오직 은혜”(sola gratia)에 근거한 구원을 말하는,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을 돌려드리는 데 관심을 가졌던 루터파 사상과 이를 더 철저히 하고 더 성경적으로 수정해 나가려고 했던 개혁파(Reformed) 사상은 교회 전체를 오직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게 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 놓았다. 그 당시의 이런 획기적인 변화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현대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개혁과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길, 즉 십자가의 신학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모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어떠한가? 지속적으로 개혁돼야 할 교회는 중세교회가 그러했듯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얽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비켜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개혁적이어야 할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까지 치부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원형을 찾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3면으로 계속)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494주년이 되는 해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중세교회를 향하여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찬란한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다. 교회의 권위가 절대화된 가운데 터져 나온 루터의 종교개혁은 권력화 된 중세교회에 경종을 울렸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외침에서 개신교는 출발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유럽 각 나라의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으며 시대 상황과 맞물려 유럽전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의 자체갱신의 시발점으로 작용, 가톨릭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가능케 한 주요 요인이 됐다.

오늘날 지구상의 수많은 개신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종교개혁의 우산 아래 머물고 있다. 종교개혁은 개신교회의 역사적

근원이며, 신앙적 근거이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참된 교회를 지향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개혁되는 교회의



지난 17일 열린 뉴욕교협 정부회장 후보소견 발표회에 참석한 후보들. 왼쪽부터 회장후보 노기송 목사, 양승호 목사, 부회장후보 이재덕 목사, 김종훈 목사(7시 10면). 한편 17일 저녁에는 교협총경회장단(회장 김해중 목사) 10명이 모여 24일 열리는 정기총회가 무사히 치러지도록 조언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명 목사(회장후보 탈락자)가 참석해 “화합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며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2면

국가적 회개의 영성 요구된다!



5면

크리스천 눈으로본 세상  
김해천 목사(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7면

종교다원주의 연구 (9)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16면

김중 인터뷰  
김태일 목사(군목/육군대위)

## SB48 주민발의안 청원 7,356표 부족, 무산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청원 서명운동을 펼쳐온 남가주교회를 돕기 위해 정규방송까지도 취소하고 투표소 현지 상황을 생중계하며 홍보에 앞장서온 미주복음방송 박신욱 목사를 만났다. 주민 발의안 청원을 위해 필요한 투표수는 504,760표. 그러나 서명자가 497,404명. 결국 7,356표가 모자라 우리의 소원이 무산 돼버렸다.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들이 명백해졌다”고 말한다.



박신욱 목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심어주고 이 땅 회복위해 피눈물나는 기도 있어야”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요?

남가주교회가 이번 서명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수가 모자라서 수포로 돌아갔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주민발의안 청원무산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 발표를 듣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금식을 하는 분도 계신 상황입니다. 저도 제일 바랐던 것은 50만5천이 모여 청원돼 내년엔 주민투표를 하고 그 법이 실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었지요. 하나님이 종분이 해줄 수 있으셨는데 왜 공물을 베풀지 않으셨나?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교회가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들을 깨닫고 미국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사명부터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미국에 다시 부흥을 가져오고 회복되기 위해 우리를 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수인 그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150만인데 50만 표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미국교단 중에서도 주교단만이 동참 안했고, 한국교회는 뒤늦게 알게 되어 한 달 동안 서명운동을 했어도 많은 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 한인들이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과 생각보다 시민권자나 유권자 등록자가 적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공물을 베풀지 않으면 이번에 주민발의안 청원이 부족한 것이 당연했고 그런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3면으로 계속)

www.chungang.org.ar

# 담임목사청빙공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중남미노회 소속 아르헨티나 중앙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50세 이상 목회경력 5년 이상(합동)
- 한국총신대학원 졸업자
- 아르헨티나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는 분

## 제출서류

- 대학, 대학원졸업증명서
- 목사안수증명서
- 현 소속 증명서
- 설교 Tape, CD, DVD 등 2편
- 2분의 목사 추천서 (추천자 사인과 밀봉 된 것)
- 이력서(사진포함)
- 목회비전

접수마감일 2011년 10월 31일 까지

## 서류제출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아르헨티나중앙교회  
CASTANARES 1435. Cap. Fed. Buenos Aires, Argentina (CP1406)  
TEL. (5411)4921-9395 / 0509, E-mail: carla7030@hotmail.com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청빙위원회





### 시론

####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며



원중훈 목사 (사카고 그리스도교회)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한 장의 사진을 남긴 채 56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다. 인터넷을 도배한 흑백사진 속의 그는 오랜 세월 트레이드마크가 된 검정 티셔츠 셔츠를 입었고 가볍게 주먹을 쥔 채로 턱에 달은 엄지손가락은 솟아오르는 아이디어의 싹 같이 보이며 곱씹히 생각하고 있는 그의 표정과 안경 너머로 무엇인가 직시하는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세상을 혁신하

란 명처럼 느껴진다. 이미 비밀 장례식과 추모식이 거행되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추모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 아이폰 4S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작처럼 생각되어 매장마다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이 한 증거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지만 스티브 잡스만큼 짧은 시간에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IT세상'은 그의 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플(Apple), 아이(i), 맥(Mac)이란 접두어를 달고 나온 각종 기기들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음뿐이 아니다. 1977년 Apple II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었고, 그 후 Apple이라는 고유의 이름과 한 입 베어 먹은 은색 사과와 로고 아래, 인종과 언어, 그리고 지역을 초월한 새로운 Apple 문화를 만들어 냈으며, 지금도 애플은 역사의 한 장으로서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중이다.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사들, IT천재, 미국 IT산업의 상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호칭들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 태어나서 신앙되는 과정도 그렇거니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수년 뒤에 다시 들어간 것, 15년 동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7년여에 거친 투병생활을 했던 것 등이 그렇다.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감동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지 않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 그에게는 기기를 만드는 창조적 기술 이전에, 인생에 대한 신앙적 수준의 철학이 있었다는 점이다. 오레곤(Oregon) 주의 리드대학(Reed College)에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중퇴한 뒤, 그는 선불교에 가까이 간다. 일본인 승려를 통해 선불교에 입문하였고, 이어 인도 히말라야 여행을 통해 불교에 깊이 몰입한다. 그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 머리를 짧게 깎았으며, 한 때 승려가 될 생각을 하기도 했더니 그에 대한 선불교의 영향력이 작지 않은 셈이다. 그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기술을 담아내는 그릇은 언제나 '집중'과 '단순'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잡스의 선불교 영향에서 비롯되었으며, 명연설로 평가 받는 스탠포드대학교의 졸업연설문 중, 죽음에 관한 내용도 그렇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당신은 잃을게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도 없다.' 편지 않은 성장 배경과 미국식 자유적 사고에 바탕을 둔 그에게 동양의 선불교가 가져다 준 자유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따르게 했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뒤 한국 조계종에서는 '선불교의 정신으로 IT산업의 미래를 선도했다'며 깊이 애도했다. 그가 인생과 사업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품고 있던 철학종교는 선불교 정신이었던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큰 존경과 넘치는 사랑을 받을 만하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여쩔 수 없다. 우리가 좋아하던 그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인간사회에 활력을 넣어 준 혁신 의지, 긴 투병 중에서도 지속된 세상 변화 의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당당함의 뿌리가 알게 모르게 선불교의 정신에 있다는 것이다.

종교나 신앙의 이름으로 그의 소중한 업적이나 숭고한 의지를 폄하하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여전히 그를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 그리고 애도하는 마음이 있다. 다만 우리에게 남긴 업적과 그의 정신은 냉철하게 가려서 보아야 한다는 것과 짧게는 7년의 투병, 15년의 애플 생활, 더 길게는 대학종교 이후에 그 옆에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정말 그 옆에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없었을까? 지나간 일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불쌍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다.

# 국가적 회개의 영성 요구된다!

## CT, "월가 점령 시위" 문제가 놓치고 있는 것" 보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월가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는 1%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 99%가 분노를 표현하는 통로로 시작됐다. 시위대들은 그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원한다는 매우 "학술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기업을 처벌하라는 요구 같은 것도 없다. 폭력적이거나 특정 정당과의 연계 등은 시위대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시위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시위가 아니라 퍼포먼스의 일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이에 대한 미국 등 서구 주류매체와 미국 공화당 등 "1%를 대변하거나 뒷돈을 받는" 보수 정치인들이나 논객들의 반응은 어딘가 이상하다. 주류 매체들은 월가의 시위에 대해 애써 외면하거나, 중심이 없는 시위여서 얼마 못가 스스로 소멸할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위의 수위는 이제 미국사회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런던, 동경, 서울 그리고 시드니에 이르기까지 1%가 지배하는 본래의 불평등을 거부하고, 다 같이 모두가 나누는 이상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든지 "시장 경제주의의 몰락"이라는 선부론 진단마저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샌프란시스코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UC 버클리 객원교수인 브루스 와이딕(Bruce Wydick) 교수의 명쾌하고 통렬한 기독교적 반성을 반영한 기고(Prophets Against Profits? What Occupy Wall Street Misses: The problem doesn't with the 1%, it's with us.)를 전격적으로 게재해 미국 사회의 근간이자 건국 이념이기도 한 검소와 정직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일종의 재정적 자격을 구비해야만 인정받는 혼합주의적 형태로 들어선 미국인들 모두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젊은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월가 점령' 시위대 규모는 2주 사이에 뉴욕에서만 2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시위 지역도 뉴욕을 넘어서 로스앤젤

레스, 보스턴, 워싱턴DC 등 미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월가 점령' 시위는 온라인 잡지 애드버스터(Adbusters)의 제안에서 시작했다. 애드버스터는 지난 7월 13일 블로



최근 유명 여배우 수전 서랜던이 '월가 점령' 시위대의 분부 격인 주코티 공원을 찾았다. 그는 "나는 월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많은 사람의 미래를 망쳤는데도 거액의 보너스를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월가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 주연으로

찾아 연설하기도 했다. 시위대로서는 막강한 우군을 얻은 셈이다. 웨스트 코티 교수는 '월가 점령' 시위를 '아랍의 봄'에 비유해 '미국의 가을'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시위대에 직접적으로 참가는 못하지만 동 운동에 관심을 갖는 참여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시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독립 언론인 이자 구글 컨설턴트라고 밝힌 브라

## 시위 한 달 지속...15일 전 세계 동시다발적 동조 시위

### "1%가 지배하는 분배불평등 해소" 주장 검소, 정직, 투명성 보장되는 영성 필요

그에 올해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처럼 시위를 벌이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은행가들은 나치나 마잔가지"라며 99%에 속했다고 믿는 청년 실업자들을 선동시킨 것이다. 따라서 시위대는 특히 월가 탐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동조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금융권의 탐욕을 질타했고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위가 2주 연속 이어지면서 이슈는 금융개혁 이슈만이 아니라 빈부격차, 실업난 등 경제문제는 물론 환경, 교육, 마약, 전쟁 등 다양한 의제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 주코티 공원의 시위 참가자들은 매일 두 차례 열리는 공개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있다.

유명한 서랜던 외에 로잔 바 같은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 폴리처상 수상 언론인인 크리스 헤지 등 많은 유명 인사들도 시위대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진보 성향의 코넬 웨스트 프린스턴대 종교학 교수가 지난달 27일 주코티 공원의 시위대를

이언 필립스(25)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방송 덕분에 현재 미국에서만 10개 이상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시위 장소는 물론 시위 대도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 담임목사 청빙

Whichita Baptist Church is looking for pastor who must be a committed follower of Jesus Christ, a person whose life bears testimony of divine calling an gifts for ministry, and one who joyfully accepts his responsibility convinced of God's leadership and the enthusiastic affirmation of the church. He will lead the church in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 Qualifications/Requirements

1. 언어:이중언어 (영어/ 한국어) 영어로 원활하게 사역이 가능하신 분(1.5세 한인 회당)
2. 교육배경 : 신학대학원 이상
3. 나이: 30세 이상
4. 목회경력: 최소 3-5년 담임목사 경력자
5. Immigration status: 최소 이민법상 Permanent resident 이상 이신 분

###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해당 문서를 첨부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와 3년 이상 아시는 분의 추천서 3통(Include their contacts)
- 개인 소개서: 가정, 성장 배경, 신앙간증, 목회철학, 목회방침, 관심분야, 달란트
- 설교 2회분의 mp3, DVD, CD(택일) 와 해당 설교 노트 또는 프린트물
- 대학/신학원 졸업증
- 연락방법(전화/주소/Email)

### 모든 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tt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Wichita Korean Baptist Church  
9736 Chamberlin  
Wichita, Kansas 67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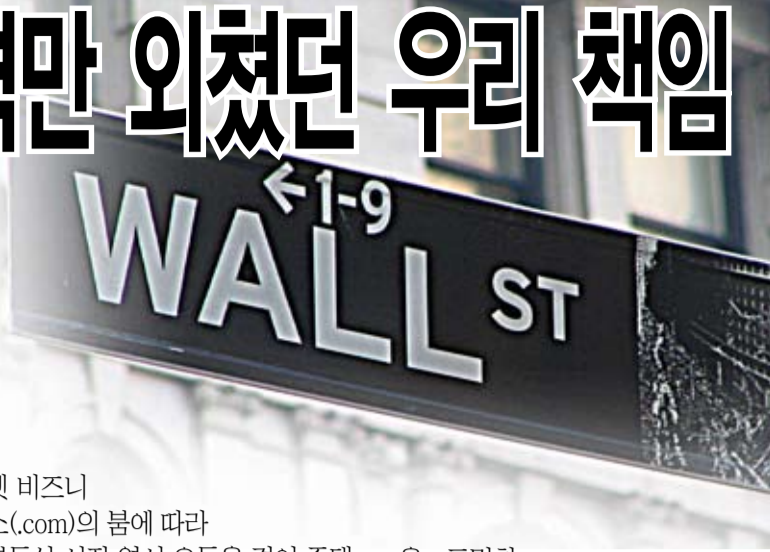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kbchurch@gmail.com**

## 위치타 한인 침례교회





# 재정위기는 물질적 자격만 외쳤던 우리 책임



(2면에서 계속)

한편 미국 맨해튼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반(反) 월가 시위가 한 달 가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조 시위가 열렸다.

시위 주최 측은 이날 82개국, 951개 도시에서 유사한 시위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동시다발적 시위는 시차가 가장 빠른 아시아권에서 먼저 시작됐다. 이날 정오부터 일본 도쿄 도심의 부유층 거주 지역인 롯폰기와 히비야 공원에서 100여명 썩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빈부격차에

게로 확산되고 있는 소위 "대세"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 와이디 교수는 먼저 '월가 점령 시위운동'의 애매모호한 점을 지적한다. 표면적으로는, 금융권 안에 있는 정치적 부정을 겨냥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권은 그리 간단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해결책 역시 한방에 모든 것을 해소시킬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계에서 석학으로 인정받는 특출한 교수들이 오바마 정권 밑에서 경제 분야에서 지난 2년 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

넷 비즈니스 스(.com)의 붐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역시 요동을 겪어 주택 가격 역시 상한가를 갱신했다.

그러자 미국인들은 저마다 "내 집을 장만하자"라는 열풍이 몰아치고, 신용 대출만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제로(Zero) 다운 페이먼트 모기지, 너무 쉬운 주택융자승인 그리고 저리의 이자율까지 합세해 주택시장의 버블 현상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버블이 정점에 달하자, 갑자기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주었던 금융권들의 잇따른 도산과 붕괴로 지구촌에는 경제 침체라는 쓰나미의 여풍을 계속 맞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권, 정치권에만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처럼 물질적으로 구비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거나 정당하다는 "물질적 자격구비"의식이 바로 현재 우리가 겪는 총체적인 질곡과 아픔의 저변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미국인들이 물질로라도 자격을 구비하려고 해서 미국 재무성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1.2조 달러의 채무까지 지고 있다. 따라서

을 표면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자는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다. 실제로, 이민자들에게 아니면 무슬림들에게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개혁 정책이나 부정한 월가의 주역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오늘날 경제 위기의 책임은 바로 우리들이다.

99%의 소외된 사람들이 1%의 지배 집단에 반기를 들고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세계관에 동조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분열과 간극이 미국사회를 현재 지배하는 대세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1%의 집단에 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을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며 상처받은 인간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구촌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다.

결론으로, 정치적 행동은 크리스천들이 펼치는 힘든 복음화 주변에서 안일한 지름길을 종종 제시했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의 사고나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사고는 정치적 과정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빈부격차는 인간의 금지를 파괴한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면서 "격차가 벌어지면 범죄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생활보호자가 증가해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시드니에선 오후 2시부터 도심 금융 중심지 마틴플레이스에 있는 호주중앙은행(RBA) 앞 광장에 1000여명의 시민이 집결했다.

'시드니 점령' 인터넷사이트는 "상위 1%가 다스리는 세계는 잘못됐다"며 "시위 참가자들이 다양한 캠프를 차려놓고 시위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번 시위를 이끌어갈 지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참가자는 밤샘 시위에 대비해 텐트 등을 설치했다.

여기에 대한민국 서울과 대만 타이베이, 홍콩, 뉴질랜드 등에서도 자본주의의 불평등에 항의하는 '월가 점령' 시위가 진행됐다.

아시아권에 이어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이날 속속 동시다발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영국에서는 런던 증권거래소 앞에서 열리는 시위에 4000여명이 참가했다. 또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주요 도시에서 '반월가 시위'가 개최됐다.

그렇다면 대규모 시금용권과 부유층의 탐욕을 비판하고 있는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시위가 미국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

로 아직까지도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것이 그 대답이다.

그러나 월가를 점령한 시위대들이나 지구촌에서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경제나 금융권의 복잡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월가를 지배하는 총수들이나 경영자들의 경영이나 사업 운영보다 미국사회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물질적 자격 구비"의식(a sense of material entitlement)이 어느새 미국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점이다. 이 의식이 미국인들의 선택, 정치 그리고 금융권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동시에 영적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경고하셨다(눅 12:15). 그러나 기독교의 혼합주의적 형태는 어느새 미국사회에 너무 깊숙하게 자리 잡았다.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소비 물질주의와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가 영커버린 것이다.

따라서 물질적 자격 구비 즉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외적 조건이 미국 가정들의 우선순위가 돼버린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상한가를 연일 계속 갱신했던 인터



넷 의식이 미국을 부채 국가로 만들게 만든 장본인인 것이다.

그러나 채무는 미국사회의 도덕과 가치가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되게 만든다. 그러나 기독교의 혼합주의적 형태는 어느새 미국사회에 너무 깊숙하게 자리 잡았다.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소비 물질주의와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가 영커버린 것이다.

그러나 채무는 미국사회의 도덕과 가치가 새롭게 갱신되고 개혁되게 만든다. 그러나 기독교의 혼합주의적 형태는 어느새 미국사회에 너무 깊숙하게 자리 잡았다.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소비 물질주의와 진정한 기독교적 가치가 영커버린 것이다.

들을 통해서 조절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단계는 바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는 영성에서 국가적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물질적인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는 영성에서 벗어나 검소와 절약, 정치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서부터 정부나 기관들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영성으로 변형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변형과 영성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관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낙관주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희망이 아닌가 싶다.

## “성경적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1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적 고정관념' 즉 종교적 관습이 낳은 율법주의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를 향해 외쳤던 외침처럼 중세의 가톨릭과 사회를 향해 율법화 되고 고정관념화 된 신앙과 종교적 행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지 500여년이 채 안된 오늘 양적 성장주의, 교회의 세속화 등 수많은 새로운 '신앙적 고정관념'이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의 짐과 함께 사회적으로 반기독교 문화가 팽배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의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이다. 이와 함께 루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루터의 '십자가 신학(Theologia Crucis)'이다.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하듯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루터는 중세 교회의 영광의 신학에 반기를 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두는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십자가 정신의 강조를 통해 허영과 위선과 교만에 부풀어 있던 중세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 다시 한 번 루터의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때로는 우리 교회 중심에 서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의미한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전락해 버릴 때가 있지 않은가? 당연히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할 것 같은 물건으로 취급되지는 않는가? 참으로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들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앙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모든 것을 보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종교개혁주일을 맞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편집부)

## SB48 주민발의안 청원 7,356표 부족, 무산

(1면에서 계속)

15세, 2세 자녀들은 여기에 대해 무관심했고 결국 자녀들이 교회의 교육, 그리스도 부모의 교육보다 학교 교육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동성에 지지하는 단체들은 교육법 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홈스쿨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홈스쿨링은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홈스쿨링을 불법화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동성애 지지 단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왔로도 그들의 원하는 바를 위해 생명을 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가 서명이 불발됐지만 사실 주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교과서를 못 바꿔요. 2015년에나 가능한 것인데 동성애단체들이 돈을 모아 주정부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동성애교육을 상정하고 동성결혼을 주민발의안을 통해 관할하려고 했던 동성애 단체들은 힘을 합쳐 일치단결 희생적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미국 인구의 1% 안 되는 그들이 99%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무엇이며 당부하고픈 말씀은?

어느 15세 목회자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부모를 잃게 교육하지 못했고 부모는 자녀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동성애에 뿐 아니라 인본주의 자유주의 등의 가치관이 잘못이라는 것을 교육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부모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주장시키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전수해야 합니다.

(9면으로 계속)



# 총장 청빙 공고

해외한인 장로회(통합측)총회 직영 신학교인 미주한인장로회 신학대학교는 ABHE 정회원으로 가입된 학교로서, 하나님의 선지동산을 위하여 덕과 인격과 열정을 갖고 일하실 총장을 청빙합니다.

### 1. 총장 지원자격

-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및 PCUSA 소속 목사
- 1) 현재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는 아니지만 채용 후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
- 2) 미국 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

### 2. 구비서류

- 1) 이력서 및 사진 1매(가족관계 및 가족사진)
- 2) 경력증명서 각 1통
- 3) Ph.D. 학위 사본(Ph.D를 원칙으로 한다)
- 4) 최종학위 논문 제목, 목차 및 요약(Abstract)
- 5) 대학 이상 성적증명서 각 1통
- 6) 교수 추천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각 1통
- 7) 학교 발전 계획서 (3페이지)    8) 신앙고백서 (1-2 페이지)

### 3. 근무조건

2012년부터 4년간 시무하고 연임 할 수 있습니다.

### 4. 접수 마감일

2011년 11월 30일(수)

### 5. 접수처

E-mail: paulpark@9191@gmail.com/ c200077@hanmail.net  
Mail to: P.O.Box 424 Buena Park, CA 90621 (714)889-9090

### 6. 기타문의

청빙위원장 박성진 목사(213)389-2682  
서기 Chun, Daniel 목사(714)889-9090

## 해외한인장로회(KPCA 통합측)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총장 청빙위원회

청빙위원장 박성진 목사/ 서기 Chun, Daniel 목사



# 빛과 소금으로...

##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나누는 행복”

처음 월가에서 실업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시위가 뉴욕, LA를 비롯해 여러 도시로 시위가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 시위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가를 비난하며 시작된 이 시위는 미국 전체의 1%인 부자들이 미국을 점령하고, 독주하며 누리는 부를 99%인 서민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1%가 누리고 있는 부는 99%의 노력에 의한 것이며 이를 99%에게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부자들은 이 시위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경하기 위해 건물테라스에 와인을 들고 나와 마시면서 바라보는 장면이 한 네티즌

에 의해 공개되어 시위대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미국을 공룡에 비유했습니다. 공룡은 몸은 아주 크지만 몸에 비해 머리는 작은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머리로 그 큰 몸동이를 움직이는 것처럼 미국의 1%가 나머지 99%를 움직인다는 주장입니다. 높아 가는 실업률로 인해 젊은이들이 일할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아프리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습니다. 나레이터는 한 부족의 생활상을 보여 주면서 그들의 생존법을 설명합니다. 이 부족은 다름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부족으로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보다 행복지수가 높다고 소개하면서 곧이어 비취지는 화면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되지 않는 부족이지만 온 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추장을 비롯한 온 부족의 저녁식사는 감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감자를 불에 구웠습니다. 그리고

는 온 부족이 둘러 앉아 약간의 목뎀을 한 뒤 나이가 가장 어린 아이부터 감자를 먹게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감자를 다 먹은 후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감자를 먹게 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감자의 양은 줄어들어 마침내 마지막 추장이 먹을 순서가 되었습니다. 감자는 아주 조금 한 입도 채 되지 않은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장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먹는 것으로 그들의 저녁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기자는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추장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 하나가 에타게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장교에게 얼마의 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교는 수통을 그 병사에게 전했습니다. 병사는 무심코 그 물을 마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소대원들의 눈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목이 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마른 것을 꼭 참고 그 수통을 소대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소대장도 정황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소대장은 그 수통을 받아들더니 입에 대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병사에게 다시 그 수통을 돌려주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가 물을 마시려고 보니 수통의 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는 소대장의 뜻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는 수통을 입에 대고 소대장처럼 꿀꺽 소리를 내며 맛있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수통은 다음 사병에게로 전해졌다. 소대원들은 모두 꿀꺽꿀꺽 물을 마셨습니다. 마침내 수통은 군중 목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수통의 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물을 먹는 시늉만 냈을 뿐 물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전 세계인구가 먹을 만한 충분한양의 곡물이 매년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육류생산에 투입되는 농지비율이 56%이며 미국인이 고기 섭취를 10%줄이고 그에 따라 여유가 생기는 농지를 이용할 경우 적절한 양의 식량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 수는 무려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15%이상의 음식이 유통기한으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소대장과 같이 사병을 위해 물을 남겨준 부대원들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악화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 하는 이때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는 은혜가 있는 이 사회가 된다면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 푸/른/초/장

## 신승훈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이 일하며 암송되는 말씀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니 나에게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푸른 풀밭으로 일한단 풀가로 인도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쾌락의 삶을 살아도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

인데 말을 안 듣고 혼자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도 기분 나쁘고, '음침한'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골짜기'는 어려운 환경에 갇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가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끝난 뒤에는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징계는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긴 것으로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때려잡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세심하게 인도해주시지만 아니라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낸 죽을 것 같지만,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 시편 23편 1-6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보살피시는데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은 편안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어야 참된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로 끝나면 좋겠는데, 4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아직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만 인도함을 받은 데로 가면 좋

한 삼중 고난의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이런 징계를 받으면 다들 싫어 하십니다. 얻어맞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거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만 겸손하게 됩니다. 또한 만나를 먹을 때 자기가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므로 겸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복을 받으면 사람은 망가지게 됩니다. 훈련을 받아서 밑에서 부터 올라가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생을 한 다음에,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주신 복을 관리할

금은 매우 유용한 금속입니다. 정말로 쓸 곳이 많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냥 금만 가지고 있어도 돈이 됩니다. 금은 수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금은 금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이 되어야 값진 것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정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귀한 곳에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

“다닐지라도”의 원어의 의미는 “통과할지라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다는 것은 회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도 여호와 의 집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 담임목사 청빙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KAPC)에 소속된 시카고 근교에 소재하고 있는 헤브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헤브론 교회를 위하여 선택해 놓으신 담임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 자격조건:

- 헤브론의 변치않는 비전을 승계 발전시킬 리더십과 영감있는 복음적 강해 설교의 은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실 분
- 정규 대학과 본 교단에서 인정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M. Div 이상)으로 본 교단소속 (KAPC) 이나 혹은 본 교단에 발령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
- 현역 및 영예 소용이 가능한 분으로 담임 또는 부목사로 5년이상 Full Time 목회 경력이 있는 분

### 제출 서류: 1차 기본 서류:

- 본인 이력서 1부 및 사모 이력서 1부
-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1부 (청빙 조건에 대한 의견 포함)
- 자기소개서 1부 (성장과정, 가족사항, 목회동기 및 경력사항 포함)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인수증명서 1부
- 추천서 2부 (목회자 2명) - 추천인 연락처 기재 (일부 날인 필수)
- 최근 6개월내 설교 2회분 (CD, DVD 동영상 또는 web address)
- 본인 및 가족 사진 1매 (6개월이내)

### 2차 제출 서류: Email 개별 통지자에 함함

- 본인 및 사모 건강 진단서 1부
- 교단 소속 증명서

서류 제출 마감일: 2011년 11월 15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출처: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Hebron Presbyterian Church  
P.O. Box 7506, Prospect Heights, IL 60070  
이메일: hebronpc@gmail.com  
(E Mail 접수용 선호함. 문서는 Word Doc.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헤브론 교회**  
청빙 위원회

# EM 혹은 Youth Pastor

## 파트타임 구함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is looking for a part time EM or Youth Pastor/JDS by Oct. 30, 2011.

### Qualification(자격):

- 정규신학과 재학 혹은 졸업자, 영어 능통
-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with a M. 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 Fluent English

### Requirements(요구사항):

- 이력서/사진 포함
- Resume(including photo) with personal biography.

### Send to(보내실 곳):

ocopc@yahoo.com(Rev. Sam Kim)

Due Day(마감일) : Oct. 30, 2011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FPC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714)891-2029(CH) (714)614-0513(Pastor Sam Kim's Cell)

#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의 죽음을 보는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뉴욕커 잡지는 표지그림을 스티브 잡스가 천국의 진주문에 이르렀는데 베드로가 천국문에서 아이패드를 들고 그의 천국 입성 절차를 받는 그림을 표지로 실었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컸다는 풍자이다. 하지만 과연 그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갔을까?

음 소개 되었을 때에 그 회사의 로고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왜 회사 이름이 애플일까? 그것도 온전한 사과가 아니라 한 입을 베어 물린 사과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애플의 로고에 스티브 잡스의 철학과 신학이 담겨있는 것 같았다.

존 램버트에 의하면 그는 요즈음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전통적인 불교가 아닌 뉴에이지에 가까운 사상이라 하겠다. 스티브 잡스 역시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되심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다.

한 입을 물어서 입 자국의 난 사과는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생각하게 한다. 서양사람들은 선악과를 사과라고 생각한다. 남자의 목에만 있는 아담스 애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다가 씨가 목에 걸린 흔적이라고 말한다. 이 베어 물린 사과는 컴퓨터의 세계에 담겨진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비밀들을 상징하는 선악과의 의미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한 입 베어 물린 사과는 아담과 이브가 베어 물었던 선악과, 그리고 그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하는 지식의 사과이다. 애플의 로고를 보면, 이브가 한 입 베어 물고 난 사과를 아담에게 건네주는 것이 연상된다. 과연 스티브 잡스는 창세기에서 표현되는 지식에 대한 갈망을 이해하고 그것을 애플을 통해서 상업화 한 것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가 예수 밖에 인생으로 끝났다면 그의 거대한 성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문명들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 시작을 했다. 가인이 아들을 위하여 예복성을 지은 건축문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을 팝의 황제이라고 부르는데처럼 애플의 창시자이며 CEO이었던 스티브 잡스를 기술의 황제라고 말한다. 기술의 황제인 스티브 잡스였지만 끝내 암과의 투병을 이기지 못하고 5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전세계의 산업은 물론 문화에 미친 영향은 정말로 지대하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뉴스가 전세계의 뉴스를 메인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이 트위터에 1초에 만개 이상이 접속되는 등 사상 초유의 엄청난 애도의 물결이 전세계를 뒤덮었다.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었다. 친아버지인 시리아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어머니 부모의 반대 때문이었다. 친부모들은 결국은

을 이기지 못하고 다운되었다.

이런 기술의 천재적인 혁신을 주도한 그도 모든 영역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을 한학기 공부하고 배우는 의미가 없다고 도중 하차했다. 하지만 그의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ly' 모토를 현실화 시키며 그가 주도한 기술의 발전은 물론 전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발자국을 남겼다. 2005년에 명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감동적인 연설처럼 자기가 당한 가장 큰 어려움을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 고난은 새로운 길을 여는 놀라운 발명품들의 연속으로 수많은 싸움을 극복하고 넘어섰다.



## 기술의 황제, 스티브잡스의 애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결혼했지만 스티브를 찾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스티브는 양부모 아래서 자라났다. 그는 어려서 루터란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70년대에 인도를 여행하고 불교적 뉴에이지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불교의 중인 쿠번 치노의 주례로 결혼식을 했다. 그는 늘 단순하고 겸손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가 새로운 IT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항상 짧은 머리에 청바지와 검정색 터틀넥 차림을 자신의 패션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다. 그는 기술계의 혁명을 주도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현대 최고의 발표자였다. 그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독특한 매력적인 발표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개인용 PC의 세계를 여는 애플 컴퓨터로 부터, 맥켄토시, 그리고 현대의 iPod, iPhone, iPad, iCloud로 전 세계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와 컴퓨터의 세계를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연결하는 연결자interface 이었다. 그의 탁월한 발표 능력을 보면서 설교자들은 세상의 상품도 그렇게 잘 파는데 우리는 어떻게하면 생명을 주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명, 야발의 육속 문명, 유발의 음악문명, 두발가인의 철기문명, 라백의 전쟁문명의 시작이나 (창4:16-24), 하나님의 또 다른 후손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하늘에 닿는 바벨탑으로 쌓은 것이나 모두 다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기술이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뒤떨리는 생을 살 수 밖에 없다. 예수님은 주님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스티브 잡스의 기술문명에 대한 그의 공헌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물론 기술문명이 나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기술을 사용한 사람은 노아이었다. 노아의 기술문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헌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술문명의 혜택이 바로 노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에게 는 노아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과학자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애플이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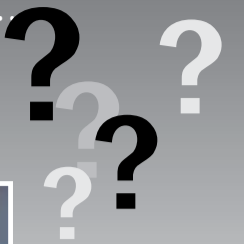
후에 알게 되었지만 크리스천 작가인 Andy Crouch 도 애플의 로고를 보고 "잡스는 인간의 타락과 실패의 원형인 '베어물린 과일 bitten fruit' 을 약속과 진전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다. 그렇게 보면 정말로 애플 컴퓨터는 사단이 선악과를 한입 베어 먹음으로 '하나님 같이 되는' 지식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유혹한 것처럼 클릭 하나로 지식과 놀이의 인터넷과 정보세계로 연결되게 한다. 디지털 세계에 깊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스티브잡스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처럼 한 일이다. 상술의 세계가 신비의 세계로 바뀌는 가장 깊은 인간의 갈망을 자극하는 능력이었다.

현대의 기술과 문화를 통통한 분석가인 Kurt Vonnegut 은 이것을 잘 이해했다. Vonnegut가 1994년 시라큐스 대학 졸업식에 연설 하는 가운데 "인터넷 첫시대는 Generation X 가 아니고 처음 인터넷 세대는 Generation A" 라고 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세대라는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IT의 아이콘 역할을 한 스티브 잡스의 업적이 기독교와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그의 독특성을 알고 싶습니다.  
-오렌지에서 김탁성 청년

**A:** 21세기 정보기술 즉 IT혁명의 아이콘 역할을 한 "스티브 잡스"가 지난 6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1976년 개인용 컴퓨터를 상용화 시키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출시하여 디지털 시대에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물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이제 전화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모든 컴퓨터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이메일도 체크하고 보내고 상품도 및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2주간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사람이 손에 들고 다니는 아이폰으로 차안에서도 제가 섬기는 교회의 웹사이트와 교회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IT문화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가 점령지의 영토에 최첨단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바울사도가 예수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을 세계에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활용해 만든 애플제품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저 땅끝

## 아이폰만 있으면 땅끝 어디라도 복음 전파

의 사람들에게 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뒤엎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저 이슬람 지역에서도 아이폰만 있으면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잡스는 예수를 믿지 않아 불행히도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잡스를 통한 그의 IT 업적을 통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는 몇 가지 도전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남과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값비싼 물건일 때 그는 앞으로 냉장고처럼 많이 팔리리라 확신하고는 자기 집 창고에서 애플을 창업하고 Apple 2로 PC 대중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스의 하는 말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포라이의 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의 미래를 바라보는 천재성은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게도 적중을 했습니다.

2)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그는 늘 성공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진짜 예술가이다면서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바보처럼 무직했습니다. 그는 자기 세운 애플에서 쫓겨나는 수모와 비참함을 겪었으나 애플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13년 만에 다시 CEO로 복귀했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애플을 세계 최대의 IT업체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실패를 딛고 결국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신념으로 큰일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빌 4: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때 놓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종교다원주의 연구 (10)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순교자 변신환?

1992년 감리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한 변신환 교수는 1995년에 숨을 거두었다. 그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논문을 작성하던 도중 학자답게 책상에 앉아서 생을 마쳤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던 자 중에 그를 순교자로 칭하는 자들도 있었다. 아마도 그가 은퇴기념식에서 송별사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키에르케골의 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이는 천재가 아니라 순교자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들에게 대한 복종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자기를 몸소 죽도록 복종하는 순교자. 사람들은 이 순교자를 쳐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이가 바로 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교자. 우리는 순교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순교적 각오로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의 사역이란, 그가 같은 연설에서 감신에서의 강의를 회상하면서 언급한 대로 토착화 신학과 한국적 신학을 다원주의 종교해방신학의 패러다임에서 재형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변 교수를 순교자로 부르며 추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그 당시 문체의 근원이 되었던 그의 다원주의 신학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를 순교자로 부른 신학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감신대의 이정배 교수이다. 그는 감신교단의 후배들이 출교를 당한 채 아픈 마음을 품고 숨을 거둔 선배 변 교수를 기억하며 학회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변 교수가 순교로 뿌린 종교다원주의 신학 씨앗이 잘 자라 열

매하게 드러내준다. 이 교수는 각 종교의 차이점의 원인을 세계관의 상이점으로 정의하고,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할 때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세계관이란 자연, 신, 그리고 인간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는 범신론적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실재에 대한 이론이 자연으로부터 발생되며, 그 안에서 인간은 자기 이해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는 방법에 대하여 동서양 종교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일치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가 장안한 기축시대(Axial Age) 사상에 근거한다. 야스퍼스는 1949년에 '역사의 시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기원전 800년부터 200년까지의 기간을 '기축시대'라고 명명하고, 차후 동양과 서양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상이 이미 이 시대에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응축되어 나타났으며 인간의 영적 기초의 근본적인 범주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현존하는 다양한 종교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으려는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야스퍼스의 주장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다.

변 교수는 바젤에서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야스퍼스의 철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확고히 하였다. 그의 제자 이정배 교수는 스승의 사상을 간직한 채, 한층 더 나아가 "종교 간의 현실적 차이가 있더라도 신학적 세계상의 빛에서 근원적 같음을 말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한다. 즉 그가 중요시하는 것은 고대 신화에 담긴 몸과 진리를 깨닫는 방법에 대하여 동서양 종교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소가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신과 인간은 하나

이정배 교수는 기독교의 전통을 개신교 신학과 가톨릭 신학으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플라톤 철학을 수용한 개신교 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과 창조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한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놓여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가톨릭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자연을 통하여 초월적 영역에 존재하는 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신학의 전통이 지닌 차이점은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수용한 개신교는 초월적 영역의 신적 계시를, 자연신학을 수용한 가톨릭 신학은 인간의 자연적 이성을 그 출발점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교수는 불교와 대화를 위하여 개신교와 가톨릭 전통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독일 신비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이스터 에카르트(1260-1328)의 사상을 선택한

마틴 하이데거와 같은 현대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 교수는 에카르트를 신비주의자로 소개한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인간의 영혼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영원한 '하나'가 되는 신에 도달하고자 하는 충동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던 3-4세기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자들이다. 에카르트도 인간이 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는 신비주의는 인간의 궁극상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인간의 몸 안이 아니라는 사실의 주장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창조 전에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 신인합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이 된 후 그 하나님은 인간의 신이 되어 버렸다. 무엇을 말하는가? 에카르트는 의하면 인간이 신을 만들었으며, 또한 인간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강력한 소원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무지의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변형된 기독교

## 초월된 신과 일치 추구하는 인간노력 강조 에카르트 신비주의 추종 불교 기본사상 유사한 것 선택해 기독교 대변하는 인간종교 만들어

때 맺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하다. 과연 변 교수 이후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에 대한 신학적 토론은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순교의 열매?

이정배 교수의 '기독교 믿음과 동양적 수행, 그 하나의 접점을 찾아서'라는 논문은 그의 신학이 변신환의 사상을 이었다는 사실을 자

다른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며, 불교는 종교적 수행을 통하여 자아와 세계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 이 교수는 두 종교 사이의 상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공존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그의 스승인 변 교수가 후대에 남긴 종교다원주의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가 이해하는 기독교와 불교의

는 것이다.

이 교수가 고대 신화라는 렌즈를 통하여 바라본 인간의 몸 내부에는 우주 존재의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이곳은 인간이 실재가 존재하는 초월적인 공간과 연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간이다. 기독교는 불교와 같이 초월의 개념이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 사실을 부정한다. 기독교에도 자기 초월의 요

다. 에카르트는 신학의 이단성 때문에 종교재판을 받고 파문된 도미니코 수도사이다. 비록 일부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의 스승 타울러와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중세와 그 이후의 대표적 신비주의의 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 노위치의 줄리안, 그리고 조지 폭스 등이 여기에 속하며, 나아가서는 독일의 칼 융과

기독교와 불교의 근원적 일치점을 찾고 있는 이 교수에게 초월된 신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에카르트의 신비주의는 둘도 없는 좋은 근거가 된다. 이 교수가 이해하는 선행불교의 핵심은 수행과 깨달음을 통하여 인간 자신이 대우주와 융합된 장소이며 자기 자신이 본성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는 신비주의를 불교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중심은 말하는 주체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직관을 통해 본별자를 넘어서는 인간이다. 자의의식을 버림으로써 인간은 우주와 하나 되는 경지, 곧 진여(眞如)의 세계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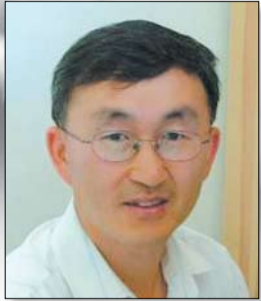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 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권영길 주일 10:00: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 예배: 오후 1:45 주일 5부 예배: 오후 3:30 필요사항: 오전 7:30 www.khanchurch.org Tel: (714) 225-8525, Fax: (714) 225-6238 6829 Knott Ave., Sausalito, CA 94965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권유필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찬양) 주일 5부 예배: 오후 3:30 수목기도: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www.nscchurch.com / www.nsc.org Tel: (925) 413-4488, Fax: (925) 413-4484 1795 N. Edgemoor St., L.A. CA 90027	<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찬양) 주일 5부 예배: 오후 3:30 수목기도: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9:30 Tel: (213) 443-4500, (925) 213-4433-4977 1825 Wilshire Blvd., L.A. CA 90027 www.nscopen.org	<b>나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목기도: 오후 7:30 수목기도: 오후 9:00(찬양)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Tel: (323) 809-7322, (925) 323-8099-1899 1218 E. Palmdale Ave., L.A. CA 90025 (Palmdale)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형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3:30 주일 5부 예배: 오후 5:00 수목기도: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Tel: (213) 481-2776 / Fax: (213) 481-3787 1645 Beverly Ave., Los Angeles, CA 90025 L.A.northchurch.com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권요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목도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www.ncldc.org Tel: (213) 216-8522, Fax: (213) 216-1123 1828 S. Western Ave., L.A. CA 90028	<b>남가주사랑의교회</b>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 예배: 오후 1:10 주일 5부 예배: 오후 3: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7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목 예배: 오전 7:30 금도 예배: 저녁 8:00 Tel: (310) 719-2244, Fax: (310) 719-2229 152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권영자 목사 "진리를 위한 사랑의 사명을 믿는 자들에게서 불꽃이 가시게 하옵소서" Tel: (312) 312-8880 / Fax: (312) 312-8162 2113 Gabriel Drive, Markham, ON, L3R 9K3, CA 90027 -기도와 사랑- 목회자 100명(찬양) -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수목기도: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9:30 Tel: (925) 783-0830, 9259, Fax: (925) 783-0412 1303 E. Colorado St., Fontana, CA 91702	<b>라하브라 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목 예배: 오후 7:30 수목기도: 오후 9:00(찬양)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www.samsungca.org Tel: (925) 260-6820, Fax: (925) 260-4044 507 E. Linda St., La Habra CA 9063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수목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Tel: (213) 269-2377, 9279 510 E.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 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성병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5 수목 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 오전 6:00 www.csbpcchurch.org Tel: (213) 281-2723, Fax: (213) 281-2525 170 Skid St., Los Angeles, CA 90014	<b>방주선교회</b> 담임목사: 박동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찬양)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찬양)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 4부 예배: 오후 1:00(찬양) 주일 5부 예배: 오후 3:00(찬양)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오후 8:00(찬양) 5728 Harvard Ave., Chesham, CA 90008 Tel: (916) 482-6900, 4892 / Fax: (916) 482-4371 Web-site: www.csbpcchurch.org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손원식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3:30(찬양)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수목기도: 오후 7:30(찬양) Tel: (845) 554-4319 / E-mail: bethelca.org 10700 Harvard Ave., St. Irvine, CA 92617 www.bethel.org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임진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수목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Tel: (604) 626-8780, Fax: (604) 626-8777 8125 152nd St., Surrey, B.C., Canada, V5V 5P6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찬양) 필요사항: 오후 7:30 Tel: (925) 446-8214 1721 W. Le Fresno St., The Hague, CA 90621	<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강재경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3:30 수목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626) 228-8777, Fax: (626) 228-8078 1947 E. Seattle St., Covina, CA 91724	<b>세계비전 교회</b>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1:00 수목 예배: 오후 7:30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Tel: (925) 253-5827, Fax: (925) 253-4822 18216 Rhoads St., Murrieta, CA 9175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후 7:30 수목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Tel: (213) 248-9161(찬양), 2489(목회) 824 W. Weste Blvd., L.A. CA 90016	<b>사향조교회</b> 담임목사: 강병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수목 예배: 오후 7:30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Tel: (916) 325-8091, Fax: (916) 325-4266 22814 E. Harvard Ave., Folsom, CA 95710	<b>샌디에고 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명박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수목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Church: (619) 577-5019 / Home: (619) 577-8548 2130 Lido St., San Diego, CA 92117 myunglak72@yahoo.com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찬양)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찬양) 주일 4부 예배: 오후 1:45 수목 예배: 오후 8:00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Tel: (916) 249-2571, Fax: (916) 249-9076 www.andyok.org 2723 Montrose Ave., Mantroos, CA 91202	<b>얼비안침례교회</b> 담임목사: 한홍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수목 예배: 오후 8:00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Tel: (925) 867-3425 / Fax: (925) 867-3422 www.bethelchurch.com 6923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오렌지카운티재림장로교회</b>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 예배: 오후 1:45 주일 5부 예배: 오후 3:30 수목 예배: 오후 7:30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Tel: (714) 861-6629 / Fax: (714) 861-6629 8620 Gales Ave., Westminster, CA 92683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강성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목 예배: 오전 7:30 금도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새벽 5:30 Tel: (213) 248-6000 2728 James W Wood Blvd., L.A. CA 90008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찬양)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찬양)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찬양) 주일 5부 예배: 오후 3:00(찬양)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수목기도: 오후 7:30(찬양) Tel: (213) 248-4272, Fax: (213) 248-6000 624 E. Normandie Ave., L.A. CA 90005	<b>온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2:30 주일 5부 예배: 오후 4:30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수목기도: 오후 5:30(찬양) Tel: (714) 449-2295, Fax: (714) 449-4207 1646 W. Wilshire Dr., Fullerton, CA 92833	<b>인랜드교회</b> 담임목사: 박신형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3:30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수목기도: 오후 5:30(찬양) Tel: (909) 394-4444, Fax: (909) 394-4444 19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찬양) 주일 5부 예배: 오후 3:30(찬양)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수목기도: 오후 7:30(찬양) Tel: (213) 749-4444, Fax: (213) 749-4444 1601 S. Grand Ave., L.A. CA 90027 www.ygc.org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준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찬양) 주일 5부 예배: 오후 3:30(찬양)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수목기도: 오후 7:30(찬양) www.gpc.org Tel: (925) 867-3425 / Fax: (925) 867-3422 172 E. Dunsmuir St., San Bernardino, CA 9240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목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찬양) 수목기도: 오전 6:00(찬양) www.koneston.org / www.konestonca.org Tel: (916) 449-4000 / Fax: (916) 449-4000 1609 N. Harvard Ave., Redwood City, CA 94061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우친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 645-0000 Fax: (323) 645-0048 N.Y.: Tel: (718) 886-4000 Fax: (718) 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60.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58:12) : 네안데르탈인의 복권

2010년 5월 7일자 유명한 과학잡지 사이언스(Science)지는 커버에 네안데르탈인의 뼈 조각 세 개를 실었다. 그 잡지 속에는 네안데르탈인(Homo neanderthalensis)과 현 인류(Homo sapiens)의 DNA 순서를 연구한 두 편의 논문과 이 논문들에 근거해서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뉴스 글이 실려 있었다.

예전 교과서에는 현대인과는 매우 흡사하지만 콧수염을 가지고 하체만 가리고 있는 그림이 실려 있었다(그림). 과학자들은 그 뼈들이 발견된 동굴 이름을 따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불렀다. 또,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현 인류와는 유전적으로 상관 없는 다른 종(species)이라고 말해 왔었다. 인류와 침팬지가 약 6-7백만 년 전에 갈라져 진화하는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은 약 80만 년 전에 또 현 인류와 갈라져 진화하며 살다가 약 3만년-2만 4천 년 전에 멸종하였다고 믿고 있었다.

1896년 독일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처음 발견된 이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자 이들이 유럽뿐 아니라 서아시아, 시베리아 남부까지 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이들이 살았던 시기와 현대인이 살았던 시기가 겹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3만 년 전부터 4만5천 년 전까지,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보다 훨씬 오래인 3만 년 전부터 8만 년 전까지 공존하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있는 한 동굴에서는 적어도 10만 년 전부터 현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2만년 후에 등장한 네안데르탈인이 그 동굴을 차지하고 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 서로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진화상으로 갈라져 나온 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고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 살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현 인류와 유전적으로 다른 종으로 평가한 이유는 미

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전혀 현 인류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핵 밖에 있는 DNA로 크기가 아주 작아 분석이 쉽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혹은 서로 다른 종간에 진화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아보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다. 약 10만 년 전 혹은 20만 년 전에 현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연대측정도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서 유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핵 속에 보관되어 있는 DNA보다 돌연변이가 훨씬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

## 네안데르탈인은 노아홍수 이후 빙하시대에 살았던 현대인 현 인류와 전DNA 차이는 0.3% 유전자는 99.84%가 동일



제 연대보다 훨씬 더 긴 연대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맨 처음에 언급한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 결과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3명의 여성 네안데르탈인의 뼈와 5명의 현 인류의 핵 속에 들어 있는 DNA 순서를 알아내고 분석한 것인데, 현 인류로는 중국, 프랑스, 파푸아뉴기니,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인들이었다. 분석 결과는 놀랍게도 아프리카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1-4% 정도씩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네안데르탈인과 현 인류의 조상들이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살았을 뿐 아니라 서로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 독일의 한 진화인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들 중에 살고 있는 거야.” 또 이 과학자들은 현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진화적으로 갈라진 시기를 과거 약 80만 년 전에서 약 44만-27만 년 전이라고 더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을 하였다. 또 현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간에 전체 DNA의 차이는 0.3%였지만 유전자들을 분석한 결과는 99.84%가 같았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과의 차이가 0.16%란 말이다(현 인류간의 전체 DNA 차이는 0.12% 정도로 알려져 있다).

네안데르탈인의 두뇌는 평균 1600CC로 현대인의 두뇌 1450CC 보다 약간 크다. 그들의 문화를 보면 석기 제작기술이 있었고, 불을 사용했으며, 가죽 가공기술이 있었고, 매장 문화가 있었는데 유골을 함께 묻어 주었다. 또 어떤 네안데르탈인의 표본에서는 수많은 상처들, 부러진 뼈, 시각 상실, 질병 등에도 불구하고 늙은 때까지 살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의료 행위를 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 트링크하우스(Erick Trinkaus)는 결론을 내린다: “네안데르탈인 유골과 현대인의 유골을 비교해보면 운동 능력, 솜씨, 지능 혹은 언어 능력이 현대 사람들보다 결정적으로 열등하다고 할 만한 해부학적인 구조는 전혀 없다”(NaturalHistory87:10,1978).

참고로 앞에 사용된 연대들 중에 8만년 이하는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법으로 측정된 것인데 그 당시 방사성 탄소의 비율을 현재와 동일하다고 하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것이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통해 계산한 연대(분자시계)는 DNA 돌연변이 속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믿을만한 연대 측정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성 탄소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DNA 돌연변이 속도는 각 생물체마다 환경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한 사람이다.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화론적인 공통조상이나 진화 과정의 불안정한 형태인 빠진고리(missing link)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은 골격 구조에서 현대인과 미세한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 차이는 현대인들 간에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강조해서 덜 진화된 중간 형태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또, 사람뿐 아니라 그 어느 생물 간에도 중간 형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창조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을 노아홍수 이후의 빙하시대에 살았던 현대인으로 확신하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유인원에서 인류의 일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권시켜야 한다. “창조 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라는 예수님의 말씀(막10:6)은 인류 이전의 사람이거나 인류가 지상에 나타나기까지 수십억 년 걸린 진화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다. 또,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창3:20)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모든 인류는 한 혈통(행 17:26), 아담의 자손들뿐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

## 말씀이 영혼의 네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10:22).

인간의 영혼에 바이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대문이 의심입니다. 하와가 하지 말라니 더 궁금해지는 유혹을 몰리치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다가 가다보니 바로 선악과 코앞에 서 있습니다. 죄의 가능성이 넘치는 곳엔 언제나 유혹이 가능한 마귀의 손바닥 안입니다.

선악과는 하와에게 완전히 참기 힘든 유혹의 판도라박스입니다. 간교하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불난 집에 의심의 화약을 던지니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뱀의 유혹하는 질문에 의심으로 나아가는 대답을 합니다. 선악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먹는 날에는 정병 죽으리라”는 말씀에 자신의 의심의 빌미를 던지지 보입니다. 이에 거짓말에 명수인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틈을 보며 쾌재를 울리며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네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됨을 하나님께서 거짓말한거야”라고 최고는 자기만 갖고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욕심쟁이, 거짓말쟁이로 확신을 가지고 모함합니다.

보통 안경과 색안경(선사)을 바꿔 쓰면 렌즈 색깔대로 만들어 탐욕의 색안경을 쓰고 보니 자신이 과연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만들어 질 것 같은 거짓말에 혹하여 선악과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에 힘입어 탐욕에 삼키운 하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됩니다. “눈이 밝아진다” 하면 그 어조에는 무언가 내게 없는 좋은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 마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진 건 사실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부족이 부끄러워 않았고 다른 이의 부족도 꼬집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고 다른 이의 벗은 모습이 눈에 너무 크게 들어옵니다. 마음에 전에 없던 새로운 잣대가 생겼습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의심하고 가리고 가칠하게 정죄하는 검은 마귀색을 칠한 악한 양심이 생겼습니다.

악한 양심은 자기 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잣대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앉아 삶을 좌우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운전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이익에 밝아진 악한 양심에 따라 살 때 수치심에 죄의식에 시달리고, 감추고 숨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서로 죽고 죽이며 시달리는 것이 제 눈에 좋을 대로 사는 고뇌 인생입니다. 지옥과 다름없는 내면의 처절한 전쟁터 모습입니다.

문명이 발달해 요즘은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이 있어 목적지를 찍으면 중간에 아무리 길을 놓쳐도 놓친 그곳에서 다시 재 조절하여 안전한 목적지로 안내해줍니다. 하나님말씀을 인생의 네비게이션으로 삼고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해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까(히11:6)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완전한 네비게이션으로 의지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험통하리라” 하나님이 상주시는 그 분과 동행하는 험통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를 살리는 약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셔요. 나 이제 예수님의 피 값으로 새생명 얻었으니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b>김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Tel. (703) 279-7979, Fax (703) 279-9191 6534 W. Desert Dr., Las Vegas, NV 89148</p>	<p><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수요찬양대: 오후 7:30</p> <p>Tel. (704) 441-6691, Fax (704) 441-9626 39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p> <p>Tel. (303) 425-6865, Fax. (303) 425-6843 7705 Ripston St., Arvada, CO 80009</p>	<p><b>풍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Tel. (903) 229-8777, Fax. (903) 229-7777 3290 Morris Rd., Lawrenceville, GA 300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동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부고)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부고) 수요 예배: 오전 11:30(부고) 새벽기도회: 오전 8:00</p> <p>Tel. (717) 345-1819, Fax. (717) 345-3036 1607 Woodstone Rd., Levittown, PA 19057</p>	<p><b>빈 앨 교회</b> 담임목사: 진용대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45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8:00(부고)</p> <p>Tel. (410) 441-6796, Fax. (410) 441-8293 3194 St. Johns Lane, Elkton, MD 21042</p>	<p><b>보스톤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11:30(부고) 새벽기도회: 오전 12:30</p> <p>Tel. (617) 449-4878, Fax. (617) 449-6487 2 Main St., Hopedale, MA 01748</p>	
<p><b>볼티모어 교회</b>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2:50</p> <p>Tel. (410) 257-6648, 889-0391, Fax. 337-8448 1705 Embassy Ave., West Lutherville, MD 21088</p>	<p><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부고) 수요 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대: 오후 7:30</p> <p>Tel. (703) 455-0191 5607 Pacific Ave., SE P.O. Box 5508 Lacey, WA 98520</p>	<p><b>시애틀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부고) 새벽기도회: 오전 8:30</p> <p>Tel. (206) 227-0281 / Fax. (206) 224-1148 4640 N.E. 30th St., Seattle, WA 98125 www.spoonville.org</p>	<p><b>임칸사 제자물 교회</b>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4: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월-토)</p> <p>Tel. (800) 828-8268 / (410) 271-2178 690 Bonye Av., Lyles, MD 21771 www.ikansa.com</p>	<p><b>앵커리지침례교회</b> 담임목사: 유계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대: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p> <p>Tel. (907) 544-6444, Fax. (907) 544-3187 8229 Silverwood Dr., Anch., AK 99519</p>	<p><b>앨파오침례교회</b>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부고)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p> <p>Tel. (252) 778-5488, (252) 778-5275 3419 Atlas Ave., El Paso, TX 79864</p>	<p><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승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9: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8:3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717) 544-2398, Fax. (717) 544-8077 752 Weaver Rd., York, PA 17404</p>	
<p><b>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Tel. (254) 624-6766, (254) 621-4837 4514 E. 8th St., Kiowa, TX 75761</p>	<p><b>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30(부고)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30(부고)</p> <p>www.aspcw.org Tel. (703) 441-4447, Fax. (703) 441-4448 4203 Mettman St., Alexandria, VA 22303</p>	<p><b>주 예수 교회</b> 담임목사: 배현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30 목회 상담: 저녁 8:00</p> <p>www.jyc.org Tel. (410) 203-0118, Fax. (410) 203-0118 328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b>큰문리교회</b>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30</p> <p>Tel. (410) 203-0118, Fax. (410) 203-0118 328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부고)</p> <p>Tel. (253) 545-1289 7481 S. Verde St., Tacoma, WA 98408</p>	<p><b>타코마 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30(부고)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부고)</p> <p>Tel. (253) 535-6207, (253) 4284 Fax. (253) 535-1425 8702 E. 3rd St., Tacoma, WA 98448</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8:3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전 8:00(부고)</p> <p>Tel. (360) 647-8252, Fax. (360) 647-8252 8424 E. Tacoma Ave., Tacoma, WA 98444</p>	
<p><b>템파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부고) 주일 3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부고) 새벽기도회: 오전 5:30(부고)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www.thcpaz.com Tel. (407) 726-0191, Fax. (407) 567-3997 1150 S. DeBono Rd., Chandler, AZ 86298</p>	<p><b>허트포드제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수요 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후 8:00(부고) 새벽기도회: 오후 8:00</p> <p>Tel. (603) 842-4738, Fax. (603) 842-6668 306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h2>하와이지역</h2>		<p><b>아가페침례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목-토)</p> <p>Tel. (800) 225-9011 1635-A Pukaia Ave., Honolulu, HI 96816</p>	<p><b>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부고)</p> <p>Tel. (808) 729-1904, Cell. (808) 219-6882 1567 E. Bermane St., Hilo, HI 96718</p>	<p><b>허와이 한국교회</b>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부고)</p> <p>Tel. (808) 947-8252, Fax. (808) 947-8252 1351 E. Bermane St., Hilo, HI 96718</p>	<p><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 947-8252, Fax. (808) 947-8252 23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 필라교협 신임회장에 이대우 목사 승계

## 16일 32회기 정기총회, 부회장 박등배 목사 선출

대필라델피아 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강승호 목사) 제32차 정기총회가 지난 16일 오후 8시 필라델피아성결교회(담임 이대우 목사·사진)에서 열려 새 회장에 이대우 목사가 선임됐다. 1부 경건예배는 이대우 목사(부회장) 사회, 임관호 목사(서기) 기도 후



강승호 목사가 예배소서 5장 15-21 절을 인용, “남은 때를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종 된 사명감으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최형관 목사(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시작된 회의에서는 2년여 동안 헌법위원들이 만든 회칙수정안이 토론 끝에 부결된 후, 임원조직에 들어가 부회장이 이대우 목사가 회장으로 자동 승계됐으며, 제1

부회장은 증경회장들이 4명의 목사를 공천해 2차의 걸친 무기명 투표 끝에 박등배 목사(서머나교회 담임)가 과반수 득표로 선출됐다. 또한 신임회장이 추천한 총무에 김진훈 목사(세전교회), 서기 박도성 사관(필라구세군), 부서기 조성수 목사(엠블라교회)가 인준됐다. (필라교협 제공)



WMU에서 열린 로마한인교회 찬양팀 초청팀 초청음악예배에서 합창단원과 WMU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월드미션대학교 로마한인교회 찬양팀 초청 13일 음악예배...설립32주년 기념 미주순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박사)는 로마한인교회 찬양팀 초청 음악예배를 13일 저녁 7시45분에 가졌다. 이날 로마한인교회 담임인 김진광 목사는 “교회설립 32주년을 맞이해 설립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미주순회선교공연을 하게 됐다. 이번엔 찬양팀을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이태리 로마에 유학 온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순회공연을 통해 미주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찬양과 성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로마한인교회 찬양팀은 ‘축복하노라’, ‘내가 산을 향하여’, ‘사명’, ‘덕히 이기느니라’, ‘영광의송가’, ‘Standing on the Promises’, ‘I am His Child’ 등을 불렀으며 ‘고향의 봄’을 다함께 부른 후 임동선 총장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찬양팀은 14일 은혜한인교회, 16일 로렐장로교회, 샌디에고 한빛교회 등에서 공연을 했으며 17일부터 23일까지 뉴욕에서 공연을 한 후 24일 로마로 돌아가게 된다. (박준호 기자)



제31대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주관하는 교회연합합창제가 수정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 교회연합합창제 13개 단체 참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8일 수정교회서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가 주관하는 교회연합합창제가 8일 오후 6시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수정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찬양제는 동부사랑의교회를 비롯, 13개 팀이 참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갖게 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참여 교회와 단체가 수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찬양제는 서양향 장르와 손영혜 권사의 사회로 손찬우 회장의 환영사와 엄영민 목사(OC제일장로교회)의 축사,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의 기도가 있는 후 첫 무대로 동부사랑의교회(지휘 김정대, 반주 김경진, 양진아)가 ‘기쁨 부으

한편 제2부회장, 감사, 각 분과위원장, 실행위원은 차후 실행위원회에서 신 임원진이 추천해 인준하기로 일임하고 강승호 목사 기도로 마쳤다. 이대우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교협과 동포사회를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하는 강승호 목사는 이임사에서 “교계와 동포사회, 각 기관들과 언론사들의 성원을 중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임자들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필라교협 제공)



세계성령운동 뉴욕기도성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일치와 단합위해 회개 기도하자” 세계성령운동뉴욕협 주최 뉴욕기도성회 개최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주최한 뉴욕기도성회가 지난 16일 저녁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만호 목사는 “요즘 뉴욕교계를 보면 엇드려 빌고 싶은 심정”이라며 “오늘 이 기도성회는 타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일치와 단합을 이루기를 바라며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황영진 목사 인도로 인사말 이만호 목사, 찬양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예루살렘찬양대, 대표기도 박진하 목사, 성경봉독 신한국 목사, 특별찬양 밀알선교협장단, 설교 장석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석진 목사는 “성령으로 아니 하고는 이 일을”(고전12:1-3)이라

는 제목의 설교에서 “뉴욕교협에서 집행부가 회원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는 지난 37년간 없었던 일”이라며 “이 사태의 원인은 마귀장난이므로 마귀세력의 진멸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한다. 성령은 못 이루는 일이 없고 나타나게 하며 회복시키며 살리는 일을 한다”고 강조하고 “잘 해결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 후 특주 제시우와 양상봉, 합심기도 ①회개로 선한 양심 회복을 위하여/박종운 목사 ②성령의 역사로 뉴욕교계 공의가 나타나도록/박성원 목사 ③뉴욕의 복음화, 성령화, 성시화를 위하여/박마이클 목사 ④전세계 성령화를 위하여/손한권 목사, 헌금기도 전회수 목사, 헌금특주 정명자 권사, 광고 김영환 목사, 축도 김용의 목사의 순서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ABSW입학설명회를 인도하고 있는 배효식 박사

### ABSW 한국어목회학박사과정 개설 13일 ABSW LA분교에서 입학설명회 개최

America Baptist Seminary of the West(ABSW 총장 폴 마틴 박사)는 한국어 목회학박사과정을 개설하고 내년 1월부터 강의가 시작된다. 12일 오후 3시 LA분교로 사용되는 로스앤젤레스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Los Angeles)에서 열린 입학설명회에서 본교의 LA 분교장을 맡고 있는 배효식 박사는 “1871년에 세워진 ABSW는 북침례교 산하 신학교중 하나이며 성경신학은 보수적이며 사회참여신학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경건과 실천을 교육하는 ATS 정회원 신학교”라고 소개했다. 그는 “ABSW는 1962년에 세워진 Graduate Theological Union(대학원신학연합)의 초대회원이며 다양한 교단전통과 국제적 교단신학을 교육하는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단의 교리와 법류를 가르친다. 본교출신으로는

흑인인권운동가 마틴루터킹 주니어 목사와 존 록펠러 주니어가 있다”고 말했다. LA분교의 수업은 봄학기부터 가을학기까지 2주간 인턴십 코스로 열리게 되며 LA분교와 본교(2606 Swight Way, Berkeley, CA)에서 진행된다. ABSW는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각자가 원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사역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진보적이라는 평도 받고 있다. 각 교단의 다양성을 흡수해 예뮬레니컬한 신학운동을 진행한다. M.A. M.Div. D.Min을 공부할 수 있으며 Th.D와 Ph.D는 GTU와 UC 버클리를 통해 할 수 있다. 한인 사역자들을 위해 개설되는 한국어목회학박사과정은 내년1월부터 시작되며 11월경부터 학생모집에 들어간다. ▲문의: 조성정 박사(213)200-2592 (박준호 기자)



기감미주특별연회 LA지방회 여성교회연합회 주관 건강세미나에서 강신욱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기감미주특별연회 LA지방회 여성교회연합회 건강세미나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 LA지방회 여성교회연합회(회장 엄인자 권사)가 주관한 건강세미나가 생수의강교회(담임 강신욱 목사)에서 16일 오후 4시30분에 본 교회 담임이자 강신욱 내과 원장인 강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강 목사는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이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신의 건강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 육신과 정신 그리고 영이 건강하게 살아 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들과 상담할 때 간혹 의술을 배제한 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치유를 하고자 하는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인간에게 주셨기에 치료가 잘 돼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암환자의 경우 가족력으로 인해 암에 걸리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던 연령보다 10년 정도 미리 종합검진에 임해 예방해 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인 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생활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 목회서신

### ‘진리에 도달하는 길’

임지석 목사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진리에 도달하는 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경험, 논리, 직관, 계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경험은 과학적인 방법론이 주된 근거로 삼는 길인데 동일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거나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는 수학과 같은 관념적인 지식체계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길입니다. 경험을 통한 방법은 인간의 제한된 경험이 언제나 같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논리는 경험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 각의 합계가 180도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술이나 종교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이 가진 경험이나 논리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각자의 고유한 깨달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관은 인간의 통찰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이나 논리나 직관을 통한 길

에는 장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를 생각해보 수 있는데 지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신앙인들의 믿음 안에는 이와 같은 그분의 역사를 믿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영역을 초월한 통찰력으로 진자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시대와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립된 지식 체계를 통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험과 직관과 논리를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증명된 일도 해답이 아닐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맞는 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신앙인들은 그분의 계시를 따라서 진리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찾는 진리는 시간과 공간 및 대상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 SB48 주민발의안 청원 7,356표 부족, 무산

(3면에서 계속)

교회가 연합한 것 같아도 모든 교회가 한 것은 아니지요.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했지만 한편으로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우리교회는 서명운동을 안한다”고 호소해 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문제 방향을 보여주고 미국 주류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격적이고 복음적인 2세 지도자를 키우지 못했다는 것과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사이엔 큰 갭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인교회가 라티노, 베트남 같은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라티노만 많이 참석했어도 가능했는데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많음에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음을 느낍니다.

첫째로, 미국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동성애교육 안이 작년 12월 상정됐고 4월에 하원의원, 7월 상원 통과돼 주지사가 사인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미국사회에 관심이 없었

둘째로 우리 교회 교육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모들을 먼저 교육해야 합니다. 교회와 1세대들이 먼저 성경적으로 살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크리스천들이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가 존경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른 커뮤니티, 심지어 백인도 우리를 존경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켜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청년사역자들이 이 사회에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를 성경적으로 비춰 도전하고 이들을 깨워야 합니다.

셋째로 이민자들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미국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21세기 청교도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사회가 타락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이 후회되던 안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살 땅인데 우리가 생각한 과거에 알았던 선교하던 나라, 온 세계를 도와주던 기독교 국가로 미국이 회복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미국과 함께 말할 것이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청교도들로 변화되는 것이 스타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에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비전세우고 기

도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교회 안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다 한 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자녀들이 사는 이 땅을 똑바로 보고 정신 차려 청교도로 새롭게 출발하기 바랍니다. 넷째로 미국의 변화를 위해 피 끓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한인들이 영주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땅에 청교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스폰서 서주고, 길이 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사회를 위해 투표를 하고 미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7,300여명의 서명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원치 않는 동성애교육을 새해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 해괴한 교육을 받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피눈물을 흘리며 인내를 위해 기도하며 역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밀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17세기에 이 땅에 왔던 소수의 청교도들이 신앙과 헌신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처럼 21세기에 이 땅에 온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성자 기자)





## 역시 뉴욕교협!...극적 타결

뉴욕교협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8일 저녁, 회장 김원기 목사(이종명 목사)가 교협사무실에서 만남을 갖고 지난 20여일만에 걸친 갈등을 풀었다. 이종명 목사는 그간 뉴욕교계에 걱정을 끼친데 대해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총회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김원기 목사도 교계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경회회장단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 이로써 교협은 소송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원기 목사, 이종명 목사, 신현택 목사(경회회장단 총무)가 서로 악수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 회칙-회원정리-인터넷언론 협약 등 뉴욕교협 총회준비 앞서 제4차 마지막 실행위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은 지난 13일 총회준비를 위한 제4차 마지막 실행위를 열고 총회상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결정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안: 개정안 26조 1항의 동일교단 조항은 37회 선거가 진행 중이므로 38회기부터 적용한다. 총회시 실행위원들은 찬성발언은 할 수 있으나 반대발언은 불허한다. 선거법 세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신규 회원 가입 및 가입 미결자는 임원회에 일임하고 비활동 회원 교회 정리위원회는 회원 명단에 있으나 비활동 중이거나 이전 폐쇄 개명 등의 회원교회는 총회에 보고한다 △청소년센터는 KYC로 통합하며



뉴욕교협 제4차 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무총장 인준을 상정한다 △기독교 인터넷 언론매체의 댓글 문화를 위한 실명 확인제를 제안하고 매체와 협약서 제적을 촉구한다 등이다. 이외에 대한민국 재외국민선거, 동해 표기, 뉴욕한인회 회비납부 등 등은 협력 사업으로 제시됐다. 또 원로성직자회의 결의인 '성직자는 축도권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선관위 세칙의 변화는 △제 10조(등록) 후보자가 없

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을 시 선관위가 후보를 선출해 총회에 상정한다. △정부회장 임후보자 등록금은 2천달러 감소 임후보자는 1천달러이다. 후보자는 여론, 선전비허용 복사본 제출, 교회현황서(출석교인 명부, 전년도 재정결산서, 최근 주보 4매)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투표권자는 선관위가 정한 시한까지 사전등록 후 선거 당일 투표해야 하며 반드시 투표표를 설치해야 한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황원진 목사(지역협력위원장) 인도로 기도 박태규 목사, 말씀 최용렬 목사, 통성기도(청소년복음화대회/10월 21-23일, 총회/10월24일), 광고 허윤준 총무, 축도 신현택 경회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신학윤리위원회 보고와 감사의 선관위 불법감사관련 기자회견이 오찬 후 이어졌다. 교협은 선관위 불법감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현영갑, 허윤준, 박태규, 최운돈, 장용선) 5인을 선정해 총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 뉴욕교협 경회회장단 성명서 발표

뉴욕교협 경회회장단(회장 김해중 목사)이 헌 교협 사태해결을 위한 모임(17일)에서 밝힌 성명서를 18일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인 이종명 목사는 선관위에 의하여 새로운 두 후보가 등록된 만큼 이 어려운 사태에 일부 책임을 지고 자숙하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 주길 ▲총회에서 선정된 감사 들께서는 마땅히 총회에 보고할 감사 내용을 총회의 허락 없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언론에 보도하고 또한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언론사 광고가 게재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본연의 임

무를 공정하게 잘 수행하여 총회에 보고해주시길 ▲헌 집행부는 이 모든 사태를 통하여 회원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겸허히 반성하고 총회가 은혜스럽게 개회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소송의 건을 즉시 철회하여 은혜 가운데 총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회원교회와 총회 대의원 여러분이 이미 주지하시는 바대로 교협 자금의 사태는 회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므로 모든 회원교회가 적극적으로 총회에 참석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정관이 개정되고, 아름다운 경선으로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현영갑 선관위원장대행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허윤준 총무.

## 뉴욕교협, 이종명 목사·감사2인 제소

### 현영갑 선관위원장대행 기자회견 "사과하면 취하"

뉴욕교협 선관위가 이종명 목사와 김명옥 목사 최재복 장로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대행 현영갑 목사(사서)는 지난 12일 실행위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 명의의 광고한 내용에 관련해 김명옥 최재복 감사의 기자회견은 선관위에 대한 불법감사라고 못 박고 이에 대하여 11일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내용은 △이종명 탈락자의 허위 서류 법적 책임 △감사 측의 불법 광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이종명 목사와 김명옥 목사, 최재복 장로는 총회에 제명을 상정한다.

현 대행은 이 불법감사가 이종명 목사(현 부회장, 회장후보 탈락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광고에 명시된 현영갑, 허윤준, 양승호 목사도 교협이 각각 제소했다고 말했다.

현 대행은 "이종명 목사가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며 "심정은 이해하나 도덕과 윤리적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양승호 목사의 나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회비납부는 선관위 실수를 인정하나 미납으로 처리돼 역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 대행은 또 "감사는 재정 감사만 해야 하

## 뉴욕교협 선관위 정부회장 후보자 소견 토론회

### 회장후보 양승호 노기송, 부회장후보 이재덕 김중훈

뉴욕교협 선관위가 지난 17일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정부회장 후보자 소견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부회장 후보에 양승호 목사(1번) 노기송 목사(2번), 부회장 후보 이재덕 목사(1번), 김중훈 목사(2번)가 참석했다.(사진 1면)

현영갑 선관위대행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먼저 출마 소견발표를 한 후 언론들이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다. 질문은 교회넷(우병만), 기독교일보(김대일), 아벤넷(이종철), 한국일보(김진태)의 순서로 3회에 걸쳐 각 후보에게 질문했다.

회장 후보인 양승호 목사는 교협회장의 이권개입을 불허하며 회원교회의 권익보호, 섬김과 봉사, 불법이 사라지는 공의와 정의의 교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기송 목사는 뉴욕교계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이 하수처럼 흐르게 하겠다며 화합과 영적 전통 회복 고수, 차세대

## 뉴욕교협 선관위 정부회장 후보자 소견 토론회

### 회장후보 양승호 노기송, 부회장후보 이재덕 김중훈

지도자 양성 발굴, 미자립교회 돕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회장 후보인 김중훈 목사는 평소 목회철학인 원리(성경)와 인격으로 풀겠다고 말하고 교협은 울타리라고 갈다며 복음적 울타리를 통해 이단과 세속화를 방어하고 믿음과 신뢰로 보완하고 격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덕 목사는 신임회장을 보필하며 기도로 협력하고 복음전파에 노력하며 2세를 위한 교육, 작은 교회 돕기, 이웃돕기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기자들은 질문을 통해 출마목적, 탈 계교정지 방안, 미자립교회 위한 실제적인 계획, WCC에 대한 입장, 재정운영, 이단대처 등에 대한 질문들을 했으며 선관위에 대한 입장과 감사광고에 대한 소송 등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총회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 A.R. 버나드 CCCNY 회장, 박정찬 감독, 지미림 CCCNY 사무총장(왼쪽부터)

## CCCNY '올해의 목회자상' 박정찬 감독 수상

미연합감리교(UMC) 뉴욕감독 박정찬 목사가 뉴욕시미국교협(CCCNY)이 매년 수여하는 '탁월한 경영지도력상(Outstanding Executive Leadership Award)'을 받았다. 시상식은 13일 저녁 맨해튼 The Saint Vartan American Cathedral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박 감독 외 4명이 각 분야 상을 수상했다.

박정찬 감독은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며 "오늘의 영광은 연합감리교의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며 세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사랑의 공동체가 구현될 때 세계의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정찬 감독은 서울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도미, 드류신학대 신학석사(M.Div.), 목회학박사(D.Min.), 1981년 목사안수(Elder), 로체스터연합감리교회와 다이나몬드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UMC동북부지역 소수인종센터 부디렉터, 북부뉴저지지역회 상담 부디렉터, 허드슨 지역 뉴저지연회 지방감리사를 거쳐 2004년 뉴욕연회 감독으로 피선, 470개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한 대행은 이 불법감사가 이종명 목사(현 부회장, 회장후보 탈락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광고에 명시된 현영갑, 허윤준, 양승호 목사도 교협이 각각 제소했다고 말했다.

현 대행은 "이종명 목사가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며 "심정은 이해하나 도덕과 윤리적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양승호 목사의 나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회비납부는 선관위 실수를 인정하나 미납으로 처리돼 역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 대행은 또 "감사는 재정 감사만 해야 하



뉴욕교협이 사회 주최 중보기도회를 시작하며 찬양하고 있다

## "평소 가르침대로...총회 잘 치르도록"

### 뉴욕교협이사회 중보기도회, 교협회복위한 기도문 발표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 이사회(이사장 황규복 장로)가 지난 13일 저녁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중보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분쟁 속 교협 회복을 위한 기도문'도 발표했다.

이 회기에 7번째로 갖는 기도회는 이주의 부이사장의 사회로 이주사의 경배와찬양에 이어 기도 유일용 이사, 성경봉독 장식면 이사, 말씀 방

직자 목사, 광고 황규복 장로, 축도 방직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교협을 위해 △교협의 목회자들이 하나로 화해하며 화목한 총회가 되게 △교계가 교협을 중심으로 하나 되도록 △합일된 온전한 과정을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황규복 이사장은 기도문에서 "현재의 고난이 교협을 동일하고 미래지향적인 선한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비협조적인 평신도지도자들의 방관을 회개한다"고 밝혔다.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회자들이 평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해결돼 모든 소란함을 종식하고 총회가 잘 이뤄지기를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신부가게**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역 등대 주일은 쉽니다  
문의: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4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946-9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저수 Towel  
앞면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배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저수 Towel  
대행도, 검토 및 각종 부속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towels.com

사랑과 믿음 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에는 "사랑과 믿음" 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온역>에서 당신의 할 소망할 임원을 맞이해드립니다.  
**문제결혼 기획**  
www.truefriend.us  
평생이지 마십시오. 회원에 가입하시면 신분연령에 관계없이 봉사차원에서 좋은 만남을 우선해 드립니다.  
email: jamesong7@yahoo.com  
43살 초혼이며 교수(Ph.D)임-성실한 신부를 찾습니다  
소장 James Song 201-363-0808 201-647-0030  
실장 Kerry Choi 201-470-1498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8-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아끼는 사랑입니다. SBM이 처방을 드립니다.  
SBM의 3대 핵심  
1. 돌봄의 신학 From Science to Faith  
2. 신명의 생활 From Faith to Innovative Life  
3. 신명의 문화 From Innovative Life to Cultural Impact  
서울 02-2584-3191, Fax. 02-2584-8633 E-mail: sbm01@sbm.or.kr  
<불교> 미주크리스천대학리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Fort Washington, NY 11090 Tel. (516) 883-1142  
138-20 38th Ave. suite 8A Flushing, NY 11354 lighlovely@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 “행복과 힘 얻는 희망과 격려되길”

## 굿네이버스 ANC온누리교회 공동 사랑나눔음악회

굿네이버스와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가 12월 저녁 7시45분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본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음악회는 ANC온누리교회성가대(지휘 장진영), LA남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 패트리시아 M. 포드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찬양을 선사했다.

특히 ANC온누리교회 오케스트라와 우리가락선교회의 사물놀이 팀과 협연에 맞춰 성가대의 찬양은 동서양 음악의 만남이 조화롭게 이어져 이날 본당을 찾은 자들에게 흥겨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유진소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의 아픔과 힘든 모든 이야기가 사랑의 부재와 사랑의 왜곡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사랑의 나눔은 바로 참다운 사랑의 모습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정말 행복하고 힘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희망과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조수아 씨와 본 교회 승광철 목사가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부른 후 유진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남가주목사회 중국동포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지난 16일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중국동포 자녀 윤철성 군에게 장학금 1천 달러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제공)



굿네이버스와 ANC온누리교회가 함께하는 사랑나눔 음악회에서 온누리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코너스톤교회에서 열린 콘넥션2011에서 이종용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설립18주년 코너스톤교회 2011 커넥션 전 세계 선교사 30명, 교회성장 현장학습 체험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는 2011년 커넥션을 13일부터 19일까지 본 교회당과 요세미티 Tenaya Lodge에서 개최했다. 이번 커넥션은 미주와 불가리아, 중국 등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목회자와 선교사 30명이 참가해 코너스톤교회의 성장과정과 교회스텝들의 간증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자들이 코너스톤교회의 사역현장에 투입돼 목장 참여 등 현

장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17일부터는 장소를 요세미티로 옮겨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만끽하며 펠로십을 갖기도 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한 커넥션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7회 동안 210명이 참여했다. 한편 코너스톤교회는 지난 16일 설립 18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준호 기자)



10일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 “성시화의 꿈 서산에서 세계로!”

####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성향...2012년 유럽에서 만나다!

2011년 국제성시화대회(대회장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 상임대회장 백승익 목사)가 대한민국 충남 서산, 서산순복음교회(담임 백중석 목사)에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표회장의 축시 낭송과 이순상 목사(조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이날 예배 설교는 김인중 목사가 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세계클립클럽연합회가 주최하고 충남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한 2011서산국제성시화대회는 성시화운동의 철학과 비전을 전파하며 미국, 유럽,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로 성시화운동을 확산하는 불씨를 지피고 성시화운동을 통한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에 헌신하게 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두상달 장로, 금병달 목사, 권태진 목사 외 많은 강사들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 저녁집회는 이재철 목사 사회로 서재철 목사 축시낭송에 이어 명성훈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목회의 본질로서의 성시화’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개막식은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의 진행으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희민 목사,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백승익 목사가 공동으로 대회 개막을 선언하며 시작했다. 개막예배는 권태진 목사(군포의왕 성시화운동본부

이날 폐막식에서 이학규 장로, 권소영 권사, 박상원 장로, 이성우 목사가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 복음의 도시, 사랑의 도시를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선언문을 낭독하고 내년 대회는 유럽성시화대회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미주공동기자대표 김창호 기자·정리 이성자 기자)

### “하나님의 진실한 일군이 되라” 새한교회, 김유정 목사 안수 및 임직식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새한교회(담임 정세훈 목사)는 16일 오후 3시 30분 본 교회 김유정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과 임직식을 가졌다. 1부 목사안수 예식, 2부 임직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세훈 목사 인도로 이재학 장로 기도예에 이어 노회장 강진웅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레8:6-17)이란 제목아래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이다. 가장 큰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도 많다. 오늘 안수 받는 김유정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기 바란다”며 “죽을 각오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난다. 김유정 목사와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들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면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 축사 박화균 목사(시온성장교회 담임)가 각각 맡았으며 정세훈 담임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임직자로 세워진 일꾼들은 다음과 같다.

## 서부교계 게시판

### 킹제임스성경 출판 400주년기념 전시회

아주사피서피대대학교(총장 존 월레스 박사)는 킹제임스성경 출판 400주년 기념 전시회를 24일(월)부터 11월 21일(월)까지 개최한다. ▲문의: (626) 815-5263

### 미주한인장로회신학대 총장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미주한인장로회신학대학교가 총장을 청빙한다. 자격은 KPCA, 예장통합, PCUSA 소속 목사로 미국 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이력서 및 사진1매(가족관계 및 가족사진), 경력증명서 1통, 학위사본(Ph.D를 원칙), 최종학위 논문제목, 목차 및 요약, 대학이상 성적증명서 각 1통, 교수 추천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각 1통, 학교발전계획서(3페이지), 신앙고백서(1-2페이지)를 11월 30일(수)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213)389-2682 청빙위원장 박성진 목사

### 창대교회 설립감사예배 및 임직식

창대교회(담임 이종준 목사)가 오는 10월 23일(주) 오후 4시 설립 13주년을 기념하며 감사예배와 함께 문희호 안수집사, 조은선 권사 임직식을 거행한다. 교회주소 173 E. Dumas Street, San Bernardino, CA 92408 ▲문의: (909)388-2940, (951)966-9191

### 아르헨티나중앙장로교회 임직감사예배

아르헨티나 중앙교회(임시당회장 임준철 목사)가 23일(주) 오후 3시 임직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임직을 받는 사람은 △장로장립: 임명식, 천명호 △권사취임: 석종애, 신명숙, 이정림 △명예권사: 조성자, 최영자. ▲문의: 5411-4921-0509

###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EM 혹은 Youth Pastor 청빙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는 EM 혹은 Youth Pastor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교 재학 또는 졸업한 영어가 능통한 자로 이력서(사진포함)를 10월30일(주)까지 보내면 된다. ▲문의: (714)891-2029, 614-0513



△목사 안수식에서 서약하고 있는 김목사 부부

###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http://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 남가주한인목사회

# 제45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남가주한인목사회 정관 제 7항 17조에 의거 제45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1년 11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풍성한교회 (박효우목사사무) 213-503-3355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등록비 : 10불

**회장, 수석부회장 후보 자격**  
(1)목사안수경력 10년이상, 남가주지역목회 5년이상  
(2)공탁금 : 회장 5,000불 수석부회장 3,000불

**공천위원회 모임**  
- 일 시 : 2011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남가주한인목사회(풍성한교회) 사무실

입후보자들은 제출서류를 2011년 11월 9일(수) 오후 5시까지 남가주한인목사회(풍성한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이력서 2)교단추천서 3)목사안수증명서 4)추천인 30인이상 5)공탁금(캐시어스чек)

**제출주소** :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ries Association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남가주한인목사회

회 장 박효우 목사  
서 기 김봉태 목사

##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 황의영목사 초청 세미나 및 워크샵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는 손발운동의 창시자인 황의영목사를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9시 - 11월 2일(수) 오전 12시

● 장 소 : 풍성한교회 (박효우목사사무) TEL. 213-503-3355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총재 : 황의영 목사**  
세계교회에 희망을 드립니다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최초로 개발한 기독교 학습이론(The Echo-Way Learning Theory)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이상적인 삶을 주제로 다룬 특수한 훈련과제를 제공하도록 계획이 소제입니다.		
A 생애 바꾸기(바오학의 권위) : 오 영준 (바오학의 권위) : 오 영준	C 영성 바꾸기(영성훈련의 권위) : 오 영준	
인내의 삶 / The Endless Life	4대원칙의 삶 / The 4 Principles of Life	크리스찬의 삶 / The Life of a Christian
의미있는 삶 / The Meaningful Life	의미있는 삶 / The Meaningful Life	의미있는 삶 / The Meaningful Life
의미있는 삶 / The Meaningful Life	의미있는 삶 / The Meaningful Life	의미있는 삶 / The Meaningful Life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Christian Faith  
**신앙의 생활화** From Christian Faith to Innovated Life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지금은 성도들의 품성과 인격을 향상시키고 성경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켜야 할 때입니다. 강단(설교)중심에서 영육중심으로 목회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INTERNATIONAL HEADQUARTERS OF SUM

### 남가주한인목사회

회 장 박효우 목사  
서 기 김봉태 목사



# 한기총 정관 개정논의 논란

## '개신안' 재개정... '개혁' 아닌 '원상복구' 지적

[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김자연)가 개혁의지를 담은 현행 정관을 다시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정관 및 운영세칙 등은 지난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개신안'이다.

개신안은 개혁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한기총 분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직부대행 체제에서 4차례 의결수령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한기총 개혁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관을 4개월도 안 돼 바꾸자는 것이다. 개정 방

향도 '개혁'이 아닌 '원상복구' 쪽에 가까워 개혁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기총 안팎에서는 특정인을 차기 대표회장으로 세우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감지 않은 해설도 나오고 있다.

정관 개정 움직임은 지난달 27일 임시총회에서 감지됐다. 임원 조직이 발표되자 중소교단 총대들은 "왜 우리 교단장 자리는 없냐"면서 항의했고 일부 임원은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임원 수를 줄여 어렵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체적인 얘기는 지난 7일 열린 임원회에서 나왔다. 이용규 한기총 명예회장은 "특별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됐으나 여기에 따르면 해마다 임원이 바뀌게 돼 혼란스러워진다"며 "(개정 얘기는) 한기총이 역사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자연 대표회장도 "특별총회가 한국교회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어도 한기총의 실재를 몰라 동한의 측면이 있다"면서 "한기총은 10년 전과는 달리 조직이 비대해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이 이뤄지면 8개월간 끌어왔던 한기총 사태 속에 개혁을 부르짖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임원은 "한기총 당사자들이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면서 이제 와서 개정 운운하는 것은 애초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던 걸 보여준다"며 "지금 개정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개정 논의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박우근)은 지난 96회 총회에서 한기총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현 정관을 수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만약 개정 움직임이 있을 시 행정보류 한다"고 결의했다. 행정보류는 재정, 인적 교류 중단을 의미한다.

# 한반도 평화와 교회 갱신 위한 기도대성회

## "지금은 은혜 시대... 약속의 말씀 임하길" 10만명 간구

"2011 한반도의 평화와 갱신을 위한 금식 기도대성회"가 14일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스톱으로 진행된 대성회는 찬양과 기도소리가 그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방불케 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10만명의 성도들은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의 거듭남을 위해 온 몸과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대성회는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대형 깃발의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이어 태극기와 한반도기, 성회기가 입장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2년마다 개최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대형 행사다. 2부로 진행된 예배는 1부엔 '한반도의 평화'를, 2부에는 '교회 갱신과 세계 복음'을 주제로 진행하면서 개교회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지향했다.

1부 예배에는 국제교회성장대회(CGI)를 위해 방한한 세계적 목회자들의 설교와 기도가 이어졌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한국의 평화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교회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에 합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체 속에 있다"며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고 멸절됐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한반도와 한국교회에 임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겔 37:9)를 주제로 열린 대성회

와질랜드 예수소명교회), 폴 징크스(미국 새생명교회) 목사 등은 성령충만, 한반도 평화, 한국교회 부흥, 영적 갱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적 지도자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들의 기도는 상암별을 정령 울리며 성도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대성회가 금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10만 성도는 점심식사도 거르고 특별 기도를 드렸다. 또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고 찬양과 기도에 열중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 한국교회의 연합과 회복,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안정 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성도들은 순복음 신앙 특유의 통성기도와 방언으로 간구했다.

2부 예배에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성령이 전하는 복음'(눅 4:16-21)을 주제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성령이 전하는 복음의 실상을 강조했다. 그는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신다"며 "이를 대적하며 휘방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또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며 "우리는 종교적이며 학문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교회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에 합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체 속에 있다"며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고 멸절됐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이 한반도와 한국교회에 임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겔 37:9)를 주제로 열린 대성회

# "종교개혁가의 초심에서 교회 갱신의 길 찾자"

## 10월 28-29일 천안 백석대서 공동국제학술대회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간(24-30일)에 16, 17세기 개혁가들의 정신에서 한국교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국내 양대 신학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오는 28~29일 충남 천안 시 안서동 백석대 국제회의실에서 공동국제학술대회를 연다.

개혁주의생명신학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회(주최)와 백석학원(실림장 장종현 목사)이 주관하는 이 학술대회는 칼뱅 연구의 세계적 대가인 미국 칼빈신학대학원 리처드 멀러 교

수가 주 강사로 나선다. 또 네덜란드 아펠도른신학대학교 에릭 필스 교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스대학 교 대니얼 로우 교수가 주제 강연을 맡는다. 씨어도 짐머만(홍콩), 아끼오 아시모토(일본), 조셉 샤오(필리핀), 아마자키 랜섬 카즈히코(일본) 교수 등이 분과별 발표자로 참석한다.

분과별 발표는 신·구약, 역사신학, 조직신학 등 9개 분과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여기에 국내외의 신학자 81명이 참가해 발표와 논평을 거친다.

학술대회는 성경적 근본과 본질을

지키면서 끝없이 자기를 갱신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당면한 문제의 탈출구라고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신학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며 "종교개혁가들의 이 모토는 지금도 변함없이 있고 끝없는 개혁을 통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종현 목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가능하다"며 "학술대회는 기독교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명과 복음, 교회 현장에서 강조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개회설교에서 개혁주의의 생명력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는 어둠 속에 빠진다고 개혁신학자들은 우려한다. 따라서 성경적 교회와 신학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이다. 특히 성경보다 좌·우파적 이데올로기가 앞서고 성경보다 교단주의가 우위를 차지하는 현실은 종교개혁을 통해 형성된 '개혁된 교회'로서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진단한다.

한편 주제 발표에서 나서는 리처드 멀러 교수는 목회에 대한 개혁신학적 접근을 주장할 예정이다. "칼뱅은 칼뱅주의자였나"라는 논문에서 칼뱅주의의 탄생과 발전 등을 점검하고 칼뱅이 제시한 교회 갱신을 분석,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 "지구촌 빈곤가정지원" 46개국 4만명 참여

## 기아대책 '스톱 헝거' 캠페인 10월말 종료

국제구호개발기구 기아대책의 '스톱 헝거(Stop Hunger)' 캠페인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 캠페인은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세계 절대빈곤 인구의 1%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18일 기아대책에 따르면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 46개국에서 4만2000여명이 식량키트 제작에 참여했고 6만5000여개의 식량키트가 만들어졌다. 식량키트 제작은 스톱 헝거 캠페인이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이다.

사업장에서 9월부터 식량키트 제작이 이뤄졌다. 한국에서보다 먼저 식량키트 제작이 벌어진 페루에서는 기아대책 홍보대사인 성우 배한성씨가 아들 민수(20)씨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28일 페루 사업장을 방문, 26일 식량키트 300개를 만들었다. 배씨는 아들과 함께 페루 리마시 아마우타 마을의 빈곤아동 가정 5곳을 방문,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벌이고 식량키트를 전달했다.

기아대책에 따르면 후원금 1만원은 빈곤층 어린이 한 명이 1년 동안 비타민제를 하루 두 알씩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10만원으로는 한 가구가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20kg짜리 밀가루 6포대, 100만원으로는 한 마을이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20kg짜리 옥수수 150포대를 살 수 있다.

스톱 헝거 캠페인은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유엔이 2015년까지 이루겠다는 8가지 MDGs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다. 기아대책도 유엔의 계획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스톱 헝거 캠페인을 마련했다.

4인 가족의 일주일치 식량이 담긴 키트를 만들어 전 세계 빈곤가정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이 캠페인은 시작됐다. '세계 사랑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국내 17개 도시에서 식량키트 제작 행사가 열렸다. 2만5000여개의 식량키트가 만들어졌고 이달 중 짐바브웨, 탄자니아, 에콰도르, 타지키스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인 후원금은 36개국 3만1000여명의 빈곤층 어린이들의 급식 및 영양지원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캐나, 에티오피아,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 전세계 46개국의 기아대책 해외

사업장에서 9월부터 식량키트 제작이 이뤄졌다. 한국에서보다 먼저 식량키트 제작이 벌어진 페루에서는 기아대책 홍보대사인 성우 배한성씨가 아들 민수(20)씨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28일 페루 사업장을 방문, 26일 식량키트 300개를 만들었다. 배씨는 아들과 함께 페루 리마시 아마우타 마을의 빈곤아동 가정 5곳을 방문,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벌이고 식량키트를 전달했다.

기아대책에 따르면 후원금 1만원은 빈곤층 어린이 한 명이 1년 동안 비타민제를 하루 두 알씩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10만원으로는 한 가구가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20kg짜리 밀가루 6포대, 100만원으로는 한 마을이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20kg짜리 옥수수 150포대를 살 수 있다.

# 금융권 자성 촉구 기독교인연대 출범

## 한국도 월가에 이어 12개 기독교단체 성명서

[미션라이프] 미국 뉴욕 월가에서 촉발된 금융권 개혁 요구가 한국교회 내에서도 일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금융자본의 무한 권력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사회책임, 에스더기도운동, 상가임대교회연합, 선진화기독교연합 등 12개 기독교 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금융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과 중소기업의 지리대출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록금 대출 이자 감면 등을 요구했다. 또 금융권 경영진의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와 노조의 과도한 복지추진 요구 등의 자제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7대 시중은행

은 역대 최대 이익을 얻어 10조원이 넘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며 "그럼에도 서민 대출 중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은행당 3억원을 출자해달라는 금융당국의 제의는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IMF시기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금융권이 국민들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17일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매일 오후 6-8시 금융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전국 교회와 은행 본점 등에 호소문을 발송하고 온라인과 거리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 "배우자 선택할 때 신앙부터 본다"

## 남 50%·여 56%...한국크리스천결혼관 조사

'신앙심' '마음씨' '외모' '능력' '집안'. 누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한두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항목이다. 만약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와 사귀고 있다면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앞서 인쇄심부터 걸러야 한다. 상대방이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까지 인도해주고 기다려야 함은 물론이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평생 신앙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마음씨는 어떠한지를 잘 가능하고 확신이 설 때

결혼 여부를 결정짓는 게 중요하다. 기간 잡지 SNS미디어가 최근 발행한 '랭킹' 가을호가 '크리스천의 결혼관'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교인 393명(남 160명, 여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 160명 중 50%는 '배우자 선택할 때 신앙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마음씨'(18.75%), 3위 '외모'(15%) 순으로 답했다. 20대 미혼 남성들은 "믿음 안에서 함께 결혼생활을 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활동, 헌

결혼 등으로 인해 발생될지 모를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서 신앙심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높은 56.65%가 신앙심을 1위로 들었다. 2위 마음씨(21.03%), 3위 능력(9.01%) 순이었다. 남성은 여자의 능력보다 외모를 따지는 반면 여성은 외모보다 남성의 능력을 우선 고려했다. 20대 미혼 여성들은 "외모와 신앙심은 결혼 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능력, 경제력 등은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밝혀 남성보다는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곳으로는 교회가 으뜸이었다. 남성 응답자의 50%, 여성은 59.22%가 현재 자신이

다니는 본교회가 좋다고 했다. 2위로 남성은 웨딩홀(18.12%), 여성은 호텔(23.17%)을 꼽았다.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은 "남들과 다른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축의금에 관한 설문도 관심을 끌었다. 남성의 43.12%, 여성의 38.62%가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기분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30대 중반의 미혼 남성들은 "축의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 외 축하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들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3만원정도로는 답답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5만원이 적당한 것 같다"고 했다.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앞초, 절망을 -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김포의 새생명교회, 나성 복부 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침례교회, 노스웨스트 침례교회, 달라스 한인 침례교회, 대흥침례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원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침례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비전한국교회, 미주 중앙교회, 배례 한인교회, 배례 침례교회, 브리지교회, 샌디에고 아담스교회, 성원한국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영적교회, 시온연합침례교회, 아버디타운교회, 아담스교회, 알버틴 침례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예살교회, 은혜침례교회, 은혜한국교회, 주님이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도원스 제임스교회, 도원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허버 침례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WORK.COM, RIGW, BUSINESS AS MISSION, FmC, ITMC, PGM, ENJOY&TV, HGM, SILKWAVE MISSION, ThisisMeOnTV.com, KBS, MBC 등 항상 성심껏추진 받은 교회의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헌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을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대선 없는 **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휴대응**: 남가주 전역(8450여상 분사)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다주 주문시 면제)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시리즈 **실교** 전용 원본만 보나 주시던 **본질, 제작, 복제, 포지 디자인에서** 찍기까지 **원리** 수준에 **관여** 품질로 **피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찍는 불편 리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설교, 찬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중에 존재없이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당기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오망)**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세요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성품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직 민중 해결사 -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복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인성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정으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분, Label Print + CD Dupli 시 40-45장/분
- 효율적 개본 워크 플로우가므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옵션**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가미**되어 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http://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tlen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시디를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클래지중 가장 빠른속도, 가장 낮은 에러율 및 고정밀도  
- 엔터프라이즈용인 I.V Enterprise  
- 엔터프라이즈용인 I.V Enterprise  
- 엔터프라이즈용인 I.V Enterprise

**실교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2063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1961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



D국

안녕하세요? 시월 중순 남방의 땅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소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여름 저희는 여러 번의 수련회와 컨퍼런스, 여러 단기 선교팀 방문, 그리고 저희 단체 내의 여러 방문자들을 맞아 바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기도편지에는 여성 사역에 대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슬람 사역에 있어 여성 사역의 중요성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있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여

성 사역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현지 선교단체도 여성 사역자들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약간 명을 제외하고는 전도의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전임사역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성 사역자 사모들입니다.
무슬림 여성들을 방문하거나 예수님을 믿게 된 무슬림 배경의 새신자들을 양육할 때에 현지 사모들이 함께 동행하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들의 많은 수가 신학교 출신이기도 하여 매우 효과적입니다.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여성 사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 선교사들과 현지 여성 지도자들 7명이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말씀, 기도 그리고 사역을 함께 계획하는 핵심 그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지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상담을 하는 소그룹 모임이 2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그 모임을 통해 아주 깊은 이야기들도 나누는 치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내적자유 수련회를

2박3일 가지게 됩니다.
이 여성 사역의 목표는 이 모임들을 저희 여성 사역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역지로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다시 무슬림 배경의 여성 신자들과 이러한 모임을 갖고 또 여성 신자들은 아직 믿지 않는 여성 무슬림들과 이런 차 마시는 시간들을 통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진행되던 이 모임이 이미 사역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 아내인 Y선교사는 다른 여성 지도자 두 명과 함께 X국에서 현지 사모들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 2박3일의 수련회 강사로 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일하는 현지 선교단체를 통해 부탁이 들어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다른 선교사들이 저희 지역 여성 사역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였고, 또한 그곳과 같은 아시아권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더욱 좋겠다고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어제 시작해서 내일 금요일에 마치게 되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1. X국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임하고, 이곳 무슬림 여성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2. S국과 B국 가운데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3. L선교사는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저희 단체의 아시아 지역 지도자 컨퍼런스에 다녀옵니다.
예배의 시간들, 그리고 교회 개척과 코칭 세미나가 열리는 데 마음 많이 기쁘고 좋은 도전을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이슬람 세계를 여는 문 D국에서 L & Y 선교사 올림
ymwmlee@hanmail.net

■ 기도 제목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농촌지역에서 성장하였습니다.
11년 전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빈 술에 물을 넣고 불을 많이 땀다(피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빈 술에 불피운 가난한 농촌 목회자 사모의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이라는 이야기.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기도편지에서 여기는 "생존의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없습니다.
내부자 눈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는 먹을 것을 위하여, 질병을 구제하기 위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이들에게 행복함을 주었을 수 있지요.
이들의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



은 소망을 주고, 정체감을 세워주며, 이들의 운명적 사고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정신 사고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도움이 아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만이 이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Peter Greer가 말한 "A Hand Up, not a Hand out" (Mission Frontiers 2011)이 바른 처방이 될 것입니다.
랄프 윈터 교수는 자신이 사역한 과테말라 땅쪽을 30년 후에 다시 방문한 후에 "외과 의사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했지만 환자가 죽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쪽 인디언들의 삶은 문명화된 모습으로 크게 변화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음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늘 그의 말을 생각하면서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렌카 인디언 마을에서 이들과 더불어 살면서 행여 나의 사역이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영적으로 이들을 죽이지는 않을

까 늘 고민하며 또 한 달의 사역을 마무리 합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하고 환자도 살리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선교보고와 10월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 1. 기도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 몽케카구아 교회건축을 위하여: LA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10,000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교회에서 이를 위하여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 부에블로 비에호 교회를 위하여: 휴스턴에 계시는 한 성도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12,000불을 헌금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님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연결해주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시네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차량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계속적으로 차가 고장이 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디언아 은혜 장로교회 단기선교팀이 오셔서 사정을 보시고 1,000불과 조원규 장로님께서 10,000불을 헌금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헌금이 귀한 시드머니(seed money)가 되어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께서 채워주셔서 곧 차량을 구입하게 됩

선교지 편지



니다.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년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Ford Explore 차를 헌물하신 시카고 최순자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2. 단기선교

지난 6-7일 하나님께서 탐오 은혜를 주셨습니다.
뉴저지 한스 목사님으로부터 단기선교 오셨다가 저의 렌카 마을에도 하루 섬겨 주셨습니다.
의료팀, 안경팀, 전도팀, 주일학교 팀, 사진팀으로 하루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늘 단기선교팀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습니다.

- 3. 방과후 학교 및 청소년 사역

학교 이름을 La Escuela de la Semilla de Mostaza(겨자씨 학교)로 했습니다.
오늘(10일) 오후 2시에 입학식을 했습니다.
무려 68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5-30명을 선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렌카 아이들이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말씀과 영어, 음악, 컴퓨터, 미술 등 하루 3시간 가르치게 됩니다.
아디라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4. 몬테베르데 성경학교 사역

몬테 베르데(Monte Verde) 성경

학교는 11월 5일 사역 설명회와 함께 11월 12월 두 달간 각 동네를 방문해서 좋은 지도자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네들이 차로 갈 수 없는 곳기에 몇 시간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잘 걸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역자 안토니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5. 교회 건축을 위하여

몽케카구아 교회는 우기철이 지나면 바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카고지역에 있는 Judson 대학에서 건축학 교수로 있는 자매님께서 공사를 자원해 주시네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프에블로 비에호교회는 휴스턴에서 계시는 한 성도님의 헌금으로 지어지게 되네요.
우기가 지나면 공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 6. 교회개척 사역자를 위하여:

나랑호, 우니온, 산로렌조, 몬테베르데, 몬테베르데 우니온

- 7.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집의 음식이 되며"(잠27:27): 양, 염소, 송아지를 계속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염소의 젖을 통하여 아이들이 영양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segjunjang@gmail.com)

- 8. 장학금 사역: 몽케카구아에 살고 있는 Milta를 첫 수혜자로 시작하였는데 메릴랜드 랭빌장로교회에서 밀파를, 시카고에 있는 장학회에서 또 다른 5명의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9.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Yadira 선생, Andres 형제, Agustin 형제)

- 10월 기도제목

-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여
2. 몽케카구아 교회 건축 및 새로운 지역 교회 개척(나랑호, 우니온, 산로렌조, 몬테베르데, 몬테베르데 우니온)을 위하여
3. 제3기 성경학교(학생 8명)와 몬테베르데 성경학교를 위하여
4. 방과후 학교 사역(68명 등록하였지만 25-30명으로 선발)을 위하여

- 5.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Yadira 선생, Andres 형제, Agustin 형제)
6. 부족한 선교비를 위하여
7.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선교사 부부: 영육간의 건강 ·유진: 좋은 선생님 섬김 후 장래 MK선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동역하는 남편을 위하여 ·명진: 부르심과 VCU 내의 모든 기독교 단체가 하나가 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유진(전공 대학), 혜진(학업)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렌카 인디언을 섬기는 장세균 선교사 드림

한국 핸드폰 빌려주세요 702.812.4770 Kilm Wray
날, 모, 쿨, 입에서 떨어져 갈아서 손에는 전통기가 있으니 편하게!
일일료 \$3.00 39¢ 공짜!
www.lifebook.co.kr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다양한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교/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회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 100달러).
Pay to Order: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선교소식

이란 개종자들, 해외도피 후에도 살해 협박 여전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해외로 벗어나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는 이란 당국의 감시 강화로 인해 해외로 이주한 11명의 이란인 개종자들이 그동안 정체불명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연계된 세력일 것이라고 보인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회유에 응하지 않을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CSW는 우려를 표했다. 한 예로, 현재 사형을 선고 받은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 역시 이러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작년 9월 배교죄로 기소되었으며, 제대로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사형이 확정되어 구금 상태에 있다. AFP 등 외신들은 "나다르카니 재판은 몇 가지 오류가 생겨 대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이란 대법원은 "오류를 해결한 뒤엔 다시 대법원에서 다루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무슬림 폭도들 교회 불태워

이집트의 아스완(Aswan)주(州)에 있는 엘마리나브(Elmarinab) 마을에서 수천 명의 무슬림 폭도들이 교회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슬림 폭도들이 공격한 교회는 성 조지(St. George) 콥트 교회로 건물과 내부를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중이었다. 목격자에 의하면 지난 달 30일 금요일 무슬림 금요일도 시간이 끝난 후 무슬림들이 교회로 몰려와 교회의 돔 모양의 지붕과 벽 그리고 기둥을 파괴하고 교회 건축을 위한 목재들이 저장된 창고에 불을 질렀다. 또한 폭도들은 교회의 기둥을 파괴하고 주위에 있는 가계와 기독교인 주택 4채도 불을 질렀는데, 폭도들이 방화한 불길은 2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폭도들은 저녁 7시까지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폭도들은 심지어 소방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하였고,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 보안 요원들은 폭도를 막으려 하지 않고 구경만 할 뿐이었다고 성 조지 교회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집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고 아스완주의 모스타파 엘사예드(Mostafa el Sayed) 주지사는 텔레비전에 나와 교회가 아니라 손님 숙소가 불탄 것이라고 말하며 교회 방화 사건을 부인하기까지 했다. 성 조지 교회의 살립(Salib) 신부는 마을의 이슬람 사원 성직자가 폭도들에게 교회의 물건을 마음대로 취하라고 선동하였고 폭도들이 그의 말을 듣고 교회 건축에 쓰일 목재를 탈취하여 갔다고 말했다. 살립 신부는 성 조지 교회가 100년 전에 건축되었지만 황폐해 되어 지난 2010년 아스완주 주지사의 허락을 받아 건물 개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제3차 캐나다 한인세계선교대회를 마치고

태평양 밴쿠버에서 시작된 캐나다 세계선교대회가 대서양 끝 노바스코샤 할리팩스에서 마쳤습니다. 장장 8000km 이상의 대장정의 22 일간의 쉬임 없는 선교대회를 통해 캐나다 한인교회 안에 500명 이상의 미래선교사들이 헌신되어졌습니다. 수고하신 선교사님들과 감사님, 참여해주신 동역자님들께,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저녁 밤에 할리팩스에서 항공으로 토론토에서 공부하는 찬양, 찬송, 찬미 자녀들 숙소에서 편히 쉬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날 10월 9일 55회 생일을 당해서 감격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만 한인선교사시대를 향하여... 적은 발자취 전일보를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캐나다는 130년 조선 땅을 선교하

고 합니다. 2015년 가을, 대표되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선교대회를 지원해드리고 선교사와 교회가 서로 상생하는 선교대회로 개최되도록 섬겨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더 선교하여 교회의 난관을 정면 돌파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설 기관도 세워졌고 기구도 확대하여 모든 실무를 현지 교회 지도자와 선교사와 중앙위원회 이사님들을 세워 큰 틀의 새장을 열어주었습니다. 3차 대회는 마쳐졌지만 이제 더 많은 준비와 희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일꾼 부족, 시간 부족, 재정부족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했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시험에 듭니다. 대회 이후 섬김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을 이기게 해주시는 기간도 필요하구요. 그럼에도 이 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4차 캐나다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위해 기도와 후원과 참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선교사가 참여하고 싶은 캐나다 선교대회, 캐나다 교회가 100% 참여되고, 헌신되어진 예비 선교사님 500명이 선교사들이 파송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참가 협력해 주신 소중한 선교사님들과 감사님! 교회의 문을 열어 선교대회에 헌신해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 헌금해주시고 몸과 시간 다내어 주신 이들도 빛도 없이 부름 받으신 고마우신 선교의 유군 불평하지 않고 충성하신 동역자님들 밴쿠버, 밴프, 칼가리, 토론토, 온타리오, 몬트리올, 노바스코샤 할리팩스, 그리고 김재광 선교사님과 김인철 목사님, 그 많은 수천 명의 선교 유군들의 이름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캐나다에 소중한 주의 일꾼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박형서는 참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캐나다에서 4년 후에 다시 만나요. 사무총장 박형서 선교사 드림

선교지에서 온



멕시코

안녕하세요 어느새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이곳 멕시코에는 그 어느때보다 사회적으로 어지럽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며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비를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7-9월도 주님의 은혜와 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힘입어 감사할만 잘 마무리 하고 선교 소식과 함께 특별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멕시코 성경 목상 사역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매주 월요일 성경 공

부와 정기 세미나와 매월 마지막 토요일 리더 양육 훈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더 해 주시는 모든 목회자와 리더들, 그리고 각 지역 모임에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월요 성경공부는 현재 5년째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들은 '월요일은 성경공부의 날'로 아예 정해 놓으시고 꾸준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감사 한 것은 새로운 목회자들과의 만남과 리더들의 양육으로 정기 세미나에 새로운 강사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장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깨달음을 바로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격 달로 출판 되는 성경 목상집은 은혜가운데 무사히 진행 되고 있으며,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교재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에스라성경학교 개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년 2월부터 성경 학교를 개설 하고자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선교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 성경 세미나를 이어왔고, 각 지역별로 다니며 8주-12주에 걸친 강의를 해왔습니다. 주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모이는 모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만으로는 이곳에 필요한 리더 들을 양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저희 목상 사역을 통해 세워진 현지인 리더들과 저희들은 기도 하며 상의한 끝에 성경 학교를 개설하기로 하고 성경 학교 이름은 "에스라" 성경학교 (Escuela Biblica Esdras) 로 명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학교를 세우게 된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리더 양육입니다. 멕시코 곳곳에 진정한 진리의 말씀 선포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주님이 이루 가시는 이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meditacionbiblicamexico@hotmail.com 멕시코에서 박지만/한영정 선교사 드림.



www.gospelmai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샵핑몰. 5만 여권 이상의 도서 데이터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일반서적 용품 기독교에 관한 모든것. 매주 2회 항공 직 수입. 신속하고 정확하게 핸드. 현금처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5%에 올려지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매 드림. E-mail : gospelmai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책제목을 보내주세요. 사용시 질문 있으실 경우 1.800.404.1171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2012년 달력·다이러리.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다이러리 맞춤제작 최저가격 보장.

2012년 달력·다이러리. 예수 믿음의 조도 드 온천히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달력 디자인 예시와 구매 정보.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월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Product LIST: 2300 ANSI LUMENS 2000:1 \$1,095.00 \$699.99. 2600 ANSI LUMENS 2200:1 \$1,295.00 \$899.99. 3000 ANSI LUMENS 2000:1 \$1,795.00 \$1,199.99. 3300 ANSI LUMENS 600:1 \$3,195.00 \$2,399.99. 5200 ANSI LUMENS 1200:1 \$6,995.00 \$5,299.00.

미가엘 반주기. 영상 성경 찬양 연주기 미가엘. 터치스크린 방식 영상프로그램 쉽게 뒤움 여부드럽고 아름다워진 연주.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반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이중통역기. 기억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비이비 아이클릿 (드라마). 이중통역기 이미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젝터 샵프 밝기 2600 ANSI LUMENS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풀업가운, 성가대. 영문가운, 드레스-정장영복.

미중동부 기차역! 특별영양. 엘라크리수사 에라드수정광대상 ERAD CRYSTAL FILTRATE LED LAMP를 출력한 빛은 장마당 플라즈마 특유의 이온입니다.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최첨단 LED 조명. 최첨단 LED 조명. 최첨단 LED 조명.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영, 영영, 영영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가운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러리.



# 일보다 관계에서 기쁨 누린다!

## 국제제자훈련원, 팀 할라데이 목사의 “예수님께 배우는 관계원칙” 소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더구나 그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아마도 인생에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는 성경 전체를 두 개의 명령으로 요약해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분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으며 그 관계 맺는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다. 팀 할라데이 목사는 이렇게 예수께서 삶에서 보여 주신 사랑으로 관계 맺는 6가지 원칙을 발견했다. 즉 예수님이 사랑으로 관계 맺는 6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돈’과 ‘일’ 보다 ‘하나님’과 ‘인간’이 먼저 관계의 우선순위 균형 잃으면 ‘섬김’이 ‘이기심’ 돼

가장 높은 가치를 두라  
2.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3. 마음이 담긴 의사소통을 하라  
4.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5. 섬기는 자가 큰 자다  
6.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이제 관계 맺는 6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Q. 오늘 스케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Q. 카드명세서나 가계부를 보라. 당신은 주로 어디에 돈을 썼는가?  
Q. 가장 많이 약제로 삼는 이야깃거리는 무엇인가?  
Q. 잠들기 전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30초 동안만 여러분이 실제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다 보면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에 버금가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예수의 이 말씀은 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치가 낮은 것들을 피

다(요4장). 위에 나열된 모든 예에서 예수께서 서둘러 다음 일정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하는 오해를 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위한 큰일을 하기 원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큰일을 성취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큰일을 시작하게 되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섬김은 이기심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가 우리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가치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는 ‘돈’과 ‘일’이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돈을 벌거나 할 일을 성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관계가 일보다 중요하지 성취에서 예수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자. 그분의 인생에는 사람들의 필요와 해야 할 일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셨는지를 보여 주는 사건들로 가득하다. △죽어가는 아이로의 딸에 가는 여정에서 한 여자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막 5:21-43).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아이들을 제할 때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다(막10:14).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도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충격적인 일을 하셨

중심에 서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 해답이다.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것들과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큰일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관계를 훌륭하게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신다.

### 종교다원주의 연구(10)

(7면에서 계속)

또한 나아가서 “수행이란 바로 이런 순환적 사고 틀을 전제로 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가 기독교를 신비주의적 종교로 전제하였다는 이론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의 주장은 기독교라는 울타리에 있으나 신비주의적 색채가 짙은 영성주의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그가 정의한 대로 전통적인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매우 생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교수는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철저히 거부하고 무시할 뿐 아니라, 변형된 기독교의 형태를 여

#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 일 나병환자의 은혜 사모 (마8:1-4)

본문은 한 나병환자가 주님께 찾아와 병고침을 받는 내 용입니다. 원래 나병환자들은 일반인들과 멀리 격리돼 살 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 으며, 만일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문둥병 자라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쳐 상대의 접근을 미연에 막아야 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 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환자는 주님

께 대대히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각오 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 음서에서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대개 주님을 먼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찾아야 주를 만나고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은 은혜 사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렘29:13).

## 화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신앙 (마8:5-13)

10절은 주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신 내용 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기이히 여기시(감탄하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감탄케 하고 즐거워하게 만든 이 백부장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만을 확인하는 신앙, 즉 주의 말씀의 권위와 그 전능성을 절대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살아나신 주를

믿지 못했다고 불평한 도마에게 결국 주님께서 친히 찾아 오셔서 그 상처를 보이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 도다”(요20:29).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없었더라도 성경 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성도가 일등성도입니 다. 또 이와 같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지닌 성도를 주 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 수 우리의 약점 (마8:14-17)

17절은 주님의 치유사역의 의미를 설명한 말씀입니 다. 사53:4 말씀을 인용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그 병을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 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허물과 약점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며 괴로워합니다(롬7:24). 그러나 우리 주

님께서 우리의 나약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 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요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뢰케 만드는 요인이요, 회개케 만드는 요인 이며,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만드는 신앙의 교 사가 바로 우리의 약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목 주님 따르는 길 (마8:18-22)

20절은 “선생님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토이리 다”라고 한 서기관관의 말에 답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역시 그리스도를 ‘주’가 아닌 ‘선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자 예수를 좃는 길이 입신양명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 씀하심으로 서기관관의 정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지, 내 욕심, 내 소원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 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있고 십자가 가 있는 삶입니다. 험악하고 좁은 길 하지만 주님을 따르 는 길임에 오늘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8:23-27)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 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운 것 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문제 가 닥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 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큰 풍랑이 되 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므로 주 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오늘 세우시기 바랍니다.

## 토 하나님의 주권 (마8:28-34)

군대귀신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보내 달라고 호소함 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은 영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 권은 그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몸 과 질병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만물까지 미

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 있음을 믿으 시기 바랍니다. 교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 해야 하며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해야 하고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떠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좃으며 순한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자신 주장하는 조월을 향한 인간의 강력한 의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교 리가 아닌 인간을 주체로 하는 신학 을 발전시킨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 히 쉐라이어마허(1768-1834)의 기 본 사상을 주목했다. 인간의 체험과 감정을 중시하였던 그는 신앙이란 다 를 아닌 신에 대한 ‘절대존 감정’이 라고 정의하며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 를 놓은 것이다.

로 소개되는 기독교는 더 이상 계시 종교로서의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이다.

스티브 잡스는 “더 알기 원함인 인간 됄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았다” 라고 했다.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산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것이 ‘A’이야기의 시작이다. 지식에의 추구는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갈 망 중의 하나이다. 인간은 어떤 상황 에 있든지 더 알기를 갈망하는 존재 이다. Susan Brook 은 “스티브 잡스의 신 학. The theology of Steve Jobs: The byte out of the Apple” 라는 글에서

물론 우리는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알지 못한다. 기술의 황제 스티브 잡 스가 과연 어렸을 때에 들었던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 롭게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아니면 힌두교의 카마의 세계의 망상 속에서 윤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떠 났을까? 그가 남긴 기술혁명의 열매들 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한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열매는 과연 무엇이었을 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아쉬 움이 시디신 사과처럼 입 안 가득 배어 나온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h3>강남중앙감리교회</h3> <p>담임목사: 노계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7:30</p> <p>Tel. (02)321-7700, Fax. (02)321-850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p>	<h3>군포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권재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우.일 예배: 오후 7:30</p> <p>Tel. (02)327-6706, Fax. (02)327-6706 군포시 관문동 470-15</p>	<h3>금란교회</h3> <p>담임목사: 김경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7:30</p> <p>Tel. (02)452-7920, Fax. (02)452-377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김포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동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수.우.일 예배: 오후 7:30</p> <p>Tel. (02)317-2914, Fax. (02)317-2913 김포시 중앙동 330-1 (131-231)</p>	<h3>광주신일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한기승</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우.일 예배: 오후 7:00 신.목.토 예배: 오후 8:00 근로자회 예배: 오후 8:00</p> <p>Tel. (02)379-4811, Fax. (02)379-4812 370-170 광주광역시 서구 관음동 370-1번지</p>	<h3>동경중앙교회</h3> <p>담임목사: 이경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3)3777-8881, Fax. (03)3777-8888 2-19-1 Chiba City, Chiba, Japan</p>	<h3>돈돈한교회</h3> <p>담임목사: 정항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우.일 예배: 오후 7:30 수.우.일 예배: 오전 11:00 근로자회 예배: 오후 8:00</p> <p>Tel. (02)327-6706, Fax. (02)327-670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p>
<h3>로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영우</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39-49-627-3966 39-49-331-1716, 39-49-331-1160 USA 001 214777-5252, 001 214 777-5254, 001 214 777-5255</p>	<h3>명성교회</h3> <p>담임목사: 김삼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삼보교회</h3> <p>담임목사: 박중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사여연교회</h3> <p>담임목사: 소경석</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 419-1</p>	<h3>성문교회</h3>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성실교회</h3> <p>담임목사: 김영록</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성일교회</h3> <p>담임목사: 김재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 수.우.일 예배: 오전 11:00 근로자회 예배: 오후 8:00</p> <p>Tel. (02)327-6706, Fax. (02)327-670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p>
<h3>수영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경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수정교회</h3> <p>담임목사: 조인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7:3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승풍교회</h3> <p>담임목사: 박상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시은소교회</h3> <p>담임목사: 김성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우.일 예배: 오후 7: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 419-1</p>	<h3>신길교회</h3> <p>담임목사: 이선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신촌교회</h3> <p>담임목사: 이경미</p> <p>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8: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p>	<h3>안암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조윤</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 수.우.일 예배: 오전 11:00 근로자회 예배: 오후 8:00</p> <p>Tel. (02)327-6706, Fax. (02)327-670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20</p>
<h3>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서용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7:30 수.우.일 예배: 오전 10:30/12:30 새가족 예배: 오전 10:30/12:30</p> <p>Tel. (02)327-640-8200, Fax. (02)327-640-8200 (02)327-640-8200</p>	<h3>왕성교회</h3> <p>담임목사: 김자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장위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기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 새가족 예배: 오전 10:30/12:3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130-2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12</p>	<h3>주안교회</h3> <p>담임목사: 나경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4: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330-1 (130-231)</p>	<h3>창도교회</h3> <p>담임목사: 최승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7-231)</p>	<h3>청주주님의교회</h3> <p>담임목사: 주서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 수.우.일 예배: 오전 7:00 근로자회 예배: 오전 11:00 새가족 예배: 오전 11:00</p> <p>Tel. (04)317-2111, Fax. (04)317-2111 381-85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330-12</p>	<h3>충신교회</h3> <p>담임목사: 박종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우.일 예배: 오후 8:00 수.우.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30</p> <p>Tel. (02)727-640-8200, Fax. (02)727-640-82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0-1 (130-231)</p>



# 간/증/인/터/뷰

김테일러 목사(군목/육군대위)

## 광야 40년, 내 손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아리조나에서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테일러 목사를 만났다. 장신도 아니고 체격도 그리 크지 않았지만 검게 그을린 얼굴과 반짝이는 눈망울은 패기와 기쁨이 넘쳐 있었다. 병사들과 함께 이라크전장까지 다녀온 테일러 목사. 테일러 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봤다.]

### 40년 광야훈련

“아침에 눈을 뜰 때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평생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로 주셨기에 새날을 살게 하신 그 은혜로 가슴이 설레고 기대감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는 목사님과 달리 하루를 시작하며 가슴이 설레는 것만 봐도 웬지 기대감이 있었나? 무슨 이야기로 풀어갈까? 김 목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앞서 모세이야기를 꺼냈다. 크리스천이라면 모두가 여러 번 들었을 법한 모세이야기다.

“미군이 되면 한 달에 2주를 사막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병들은 그 2주 동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모세시대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더구나 광야에서 40년의 삶은 정말 상상도 안될 만큼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명명하시지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나? 그것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지팡이를 버렸더니 뱀이 됐고,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광야 속에 살던 모세는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았다간 당장에 뱀이 물어 죽는다는 것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을 땀별 불일 없는 나무 막대기였으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기적의 지팡이가 됐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준 김 목사가 이제 자신의 신앙여정을 털어 놓았다. 김 테일러 목사는 33살에 아메

리칸드립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대기업에서 안정된 삶을 살던 그가 더 큰 꿈을 안고 미국에 온지만 달도 못돼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한 달 만에 사기를 당해 가지고 온 돈이며 크레딧까지 철저히 바닥이 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척교회 찬양리더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보에 보니 전도사로 임명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담임목사에게 물으니 “이제부터 신학하면 되지 않느냐?”고 권한다.

그때부터 김 테일러 전도사는 2, 3곳을 전전하며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공부를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것.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김 목사에게 남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지병으로 15년 동안 병원에 있는 상태였다. 그 동생을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니 그럼 동생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15년 동안 동생의 병원비는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고민을 하다 한국으로 건너가 무작정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 더 이상 동생도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 의성에 있는 수용소 같은 곳에 맡기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고작 1년에 한번 동생을 찾아가 1박2일의 만남을 갖고 필요한 도구를 사서 들려주고 되돌아와야 했다.

“형, 하룻밤만 더 형이랑 밖에서 자면 안 될까? 한번만 더 형이랑 먹는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될까?” 김 목사를 붙잡는 동생을 억지로 들여보내고 돌아갈 때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러나 그곳에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미국에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년쯤 후 아내가 암 선고 받는다. 아내와 아버지의 약을 조금이라도 싼 값으로 구입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넘어 약을 지어 오노라면 정말 내 인생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싫기만 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생각이 한없이 뇌리를 스쳤다. 매일 200마일을 달렸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내 병원에 다녀와 부모님 만나고 다시 애들 픽업하고 신학교 가고.... 그렇



게 5년을 지내며 광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다. 견디다 못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외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 “미국 군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군목이 되라...”

### 하나님께서 군목으로

김 목사는 말도 안 된다고 도리질을 했다. “하나님, 제가 33살에 미국왔거든요. 영어 못합니다. 보잘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저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하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을 놓아라” 그때 내 모습을 돌아보니 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은 병든 부모와 병든 아내, 어린 자식들이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지팡이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김 목사는 미국나이 43세에 영어도 체력도 안됐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군목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지금도 제일 미안한 것이 딸이라고 한다. 그 당시 11살짜리 딸을 두고 군대엘 가면서 그 딸에게 모진 당부들 해야 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이라 부르셔서 군대 간다. 너 엄마 아픈 거 알지? 혹시 아침에 엄마가 못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엄마 코에 손을 대고 숨을 쉬는지 봐라. 그리고 잠착하게 911을 돌리고

주소를 말하고 구조를 요청해라...” 하나님 앞에 이걸 던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딸에게 몸뚱 부탁을 하며 하나님 품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군에 들어가 훈련받으며 가슴이 끊어지는 기도를 안 할 수 없었다고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회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훈련이 끝나자 이라크로 가야 했다. 이라크로 떠날 날 아버지가 두 번째 중풍을 맞으셨다.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위독하다. 전쟁터엔 가야 하는데 어쩌어야 한단 말인가? 가슴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김 목사는 뱀의 꼬리를 잡든 다 뒤로하고 이라크로 떠났다.

이런 김 목사에게 하나님은 이라크에서 그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지난 40년 내 손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변하게 하셨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했다”고 눈물어린 고백을 했다.

### 전쟁터에서도 사랑을

부대에 18살짜리 군인이 있었다. 아기 같은 아이였다. 그 아이에게 아침마다 어깨를 치면서 인사를 했다. “Hi~ Son!” 이 인사에 그

소년 군인도 “Hi~ Dad”라고 답했다. 별 의미없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이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다. “지난 1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내가 3살 때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가고 5살 때 엄마는 누나와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틈에이저때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어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뜻밖에 고백을 듣고 김 목사는 모든 군인들 앞에서 그 아이를 아들로 공포했다. 그 후 며칠 안되어 그 아이가 스스로 찾아와 예배 참석을 원했고 예수를 영접했다. 세례도 받았다. 이 아이에게 성경책을 선물하자. “교회도 성경도 처음이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그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모든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줄 것을 강조한다.

김 광야를 거친 김 목사에게 두려움이 없었다. 그곳에서는 매일 경찰을 하러 나가야 한다. 그런데 나날 때마다 누가 죽어서 못 돌아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나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그래서 경찰 팀마다 불러 기도해주었다. 그 순간에 기도하자고 하면 불신자들은 타종교를 가진 자든 모두 무릎을 꿇는다.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장갑차마다 손 잡고 기도했다. 하루는 한 장갑차가 폭탄을 맞았는데 그 안에 있는 6명이 모두 무사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것이다. 그 후엔 아예 경찰을 같이 나갔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김 목사가 탄 장갑차 요원들은 다른 장갑차에게 어이없는 무전을 친다. “여기 김 목사가 탔으니 우린 안전하다!”

그런데 그렇게 순찰을 나가보니 그 산골에 사는 여자들이 거의가 병이 있었다. 이슬람 법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몸을 보일 수 없어 의사에게 갈 수 없고 여자에게 교육을 안 시키기에 여자 의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김 목사 파병군 중에 여의사가 있었다. 그 여의사를 마을에 소개하고 여자들을 진료했다. 평생 약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아스피린 하나만으로도 치료가 됐다. 그다음엔 더 큰 욕심이 생겼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약을 주며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 “기도해도 되겠나?” 그들은 워낙 급하니까 무슬림들이라도 기도를 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짧은 기도와 함께 약을 주니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들과 가까워진 김 목사의 눈에 이제 아이들이 보였다. 흔한 미국의 물자가 눈에 선했고 그들의 어려운 삶의 모습이 가여워 미국에 학용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10곳에 보냈다. 그런데 그것이 확산돼 7트럭의 학용품이 이라크에 도착했다. 이 학용품을 가지고 그곳 학교에 찾아가 교장을 만나 “이것을 한 사람 한사람에게 전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하니 “예수님도 선지자 중의 한사람이니 괜찮다”고 허락을 했다. 그때부터 신바람 나게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을 안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 꼭 구원시켜주세요.”

### 원망에서 축복으로

이 얼마나 기막힌 변신인가? 1년 전만해도 내 인생을 놓고 원망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라크 아이들을 맘대로 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돼 있었다. 이라크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 특권을 가진 자가 맞이할까 정말 행복하고 기쁘기만 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수와 아픔까지도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간 것처럼 미국 땅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냥 단순히 자신만 예수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김 테일러 목사는 미국에서 이민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한다.

이라크에서 돌아올 때 그는 동성무공훈장(Bronze Star)을 받았다. 이 훈장은 특별한 공로를 세운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훈장이다. 적군을 수십 명 사살한 것도 아닌데 훈장을 주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뿐이라는 것. 광야 속에 있는 자신을 불러 이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지금도 설레지만 한다고 고백한다.

그렇다고 모든 광야의 아픔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장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은 아내는 아직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에 감사가 넘친다.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도, 한국에 두고 온 동생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며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루를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테일러 목사는 새로운 하루 그 자체가 한없는 축복이라 확신하며 오늘도 익사이팅하게 하루를 열어나간다. 파이팅을 외치면서.....

Email: teylekim@gmail.com (이성자 기자)

# 김항안 목사 초청 2012 목회 계획세미나

●일 시: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0:00 - 오후 3시 ●장 소: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Tel: 213-749-4500

3시간투자하시면 목사님의 목회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목회성공은 영성과 준비된 목회자의 몫입니다.  
왜? 한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일까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는 6월 5일 '목회자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6월 첫 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실시하고 목회자들의 영성회복과 목회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5,0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주최 | 한국교회정보센터 [www.kcdc.net](http://www.kcdc.net) | 미주교회정보센터

신청문의: [kcdc@choi.com](mailto:kcdc@choi.com) / (213)268-2883